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PASTORAL STRATEGY FOR REVITALIZING A LOCAL CHURCH THROUGH DEVELOPING LAY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WANGMYEONG CHURCH**

written by

**JAE HARK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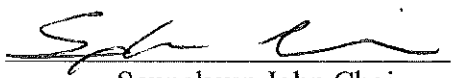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il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 PASTORAL STRATEGY FOR REVITALIZING A  
LOCAL CHURCH THROUGH DEVELOPING LAY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WANGMYEO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 HARK PARK**

AUGUST 2015

평신도 사역 계발을 통한  
지역 교회 활성화 방안  
-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박 재 학

2015년 8월

## Abstract

A Pastoral Strategy for Revitalizing a Local Church through Developing Lay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wangmyeong Church

Jae Hark Park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health of a church is inseparable from the health of its members, especially its lay people. Thus, making lay people healthy and genuine disciples of Jesus Christ is crucial for a church to be a healthy and genuine body of Christ. This ministry focus paper presents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a local church through developing lay ministry.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stablishes a proper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lay ministry by defining the nature of the church and discussing the definition, position, and functions of lay people in the church. This chapter then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lay ministry in the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 and demonstrates several important principles of lay ministry. Chapter 3 introduces the Jiguchon Church and Allak Church, which provides good examples of excellent lay ministry. After describing the history and pastoral philosophy of the Jiguchon Church and Allak Church, the chapter examines the church's lay ministry based on the principles discussed in chapter 2.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pastoral ministry, and current state and obstacles of the Gwangmyeong Church, after surveying the Gwangmyeong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t then presents a

strategy for developing the lay ministry of the Gwangmyeong Church based on the principles of lay ministry in chapter 2. The strategy emphasizes sharing vision, making faithful ministry teams, and identifying people's gifts and putting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teams. Chapter 5 demonstrates how the Gwangmyeong Church has followed the strategy and what results and changes the church's lay ministry has produced. This chapter shows how the Gwangmyeong Church helps its members to be faithful lay ministers, and how trained lay ministers are playing important roles in different ministry teams such as the worship teams, the education teams, the service teams, the mission teams, and the fellowship teams. After scrutinizing the Gwangmyeong Church's lay ministry, this chapter suggests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ministry.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말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훈련하시며 섭리하심 가운데 광명교회 담임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연구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김선일 교수님, 최승근 교수님,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의 편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으로 도와주신 풀러 신학교 서울 사무실 김태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논문 연구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해 준 동역자들과 광명교회 당회와 성도들, 친구 김형석 목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여정, 목회여정 가운데 늘 돕는 배필로 함께 해 준 사랑하는 아내 이지연과 목회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들 성원리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딸 시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8월 박재학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	4
제 2 장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 .....	6
제 1 절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이해 .....	6
1. 교회의 본질과 평신도 사역 .....	6
2.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 .....	10
3. 평신도의 이해 .....	16
제 2 절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	19
1. 시대적 요청 .....	19
2. 평신도의 영적 잠재력 .....	20
3. 평신도 패러다임 .....	21
제 3 절 평신도 사역의 원리 .....	22
1. 유기체적인 원리 .....	23
2. 직분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원리 .....	23
3. 은사계발 및 배치의 원리 .....	24
4. 섬김의 원리 .....	24
제 3 장 평신도 사역 계발 교회 사례 연구 .....	26
제 1 절 지구촌 교회 .....	26
1. 교회 소개 .....	26
2. 교회 상황과 평신도 사역 .....	28
3. 평가 .....	31
제 2 절 안락교회 .....	32

1. 교회 소개 .....	32
2. 교회 상황과 평신도 사역 .....	34
3. 평가 .....	36
 제 4 장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 .....	39
제 1 절 광명교회 지역 상황 이해 .....	39
1. 광명 지역에 대한 이해 .....	39
2. 광명 지역 교회 상황 .....	41
제 2 절 광명교회의 현황 .....	44
1. 광명교회의 역사 .....	44
2. 광명교회의 현황 .....	45
3. 광명교회 목회철학 .....	47
4. 평신도 사역의 장애요소 .....	50
제 3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방안 .....	52
1. 비전나누기 .....	52
2. 팀 만들기 .....	54
3. 은사 확인 및 배치 .....	56
 제 5 장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의 실제 .....	61
제 1 절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양육훈련 .....	61
1. 1단계 행복한 만남 .....	61
2. 2단계 영적성장의 길, 일대일 제자양육 .....	63
3. 3단계 제자훈련 I-제자의 삶 .....	65
4. 4단계 제자훈련 II-예수님의 사람 .....	67
제 2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조직 .....	68
제 3 절 공동체별 평신도 사역 조직 .....	70
1. 예배공동체 .....	70
가. 예배팀 .....	71



나. 중보기도팀 .....	75
다. 목양팀 .....	77
라. 찬양팀 .....	78
2. 교육공동체 .....	78
가. 교육 1, 2, 3, 4 팀 .....	80
나. 교육지원팀 .....	80
다. 신앙아카데미팀 .....	81
3. 섬김공동체 .....	81
가. 사역지원팀 .....	81
나. 복지팀 .....	84
다. 장학팀 .....	86
라. 목회지원팀 .....	86
마. 사랑의 식탁팀 .....	87
바. 경조팀 .....	87
사. 차량관리팀 .....	87
아. 재정감사팀 .....	88
자. 재정팀 .....	88
차. 시설관리팀 .....	89
4. 선교공동체 .....	89
가. 국내 선교팀 .....	90
나. 해외 선교팀 .....	92
다. 홍보출판팀 .....	94
라. 미디어팀 .....	95
5. 교제공동체 .....	96
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팀 .....	97
나. 새 가족팀 .....	101
다. 바나바팀 .....	102
라. 평생교육팀 .....	103

마. 코이노니아팀 .....	103
바. 취미동아리팀 .....	106
제 4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의 평가 .....	106
제 6 장 결론 .....	110
제 1 절 요약 .....	110
제 2 절 제언 .....	112
부록 .....	114
참고문헌 .....	135
Vita .....	138

## 표 목 차

<표 1> 광명시 연령·성별 인구분포도 .....	42
<표 2> 광명시 종교 인구 현황 (2005년 현재) .....	43
<표 3> 광명교회 연령별 교인 분포도 .....	46
<표 4> 2012 광명교회 조직 .....	55
<표 5> 1단계 양육사역 모델 .....	62
<표 6> 2단계 양육 사역 모델 .....	64
<표 7> 3단계 양육 사역 모델 .....	66
<표 8> 4단계 양육 사역 모델 .....	67
<표 9> 중보기도 학교 양육과정 .....	76
<표 10> 청솔대학 시간표 .....	85
<표 11> 광명교회 국내선교 현황 .....	91
<표 12> 광명교회 해외선교 현황 .....	93
<표 13> Mother Wise 시간표 .....	99
<표 14> 아버지학교 일정표 .....	100
<표 15> 가족힐링캠프 일정표 .....	101
<표 16> 광명교회 사역공동체 총인원 .....	108

## 그림 목차

<그림 1> 광명시 소생활권 지역 .....	40
<그림 2> 2013년 광명교회 사역 조직 모델 .....	56
<그림 3> 일대일제자양육과정 .....	65
<그림 4> 광명교회 사역 모델(2015년 현재 모델) .....	69
<그림 5> 광명교회 예배공동체 사역 모델 .....	71
<그림 6> 광명교회 교육공동체 사역 모델 .....	79
<그림 7> 광명교회 섬김공동체 사역 모델 .....	82
<그림 8> 광명교회 선교공동체 사역 모델 .....	90
<그림 9> 광명교회 교제공동체 사역 모델 .....	9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춘 것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내적으로 영적인 힘이 매우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분명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교회의 수많은 내적·외적 도전들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본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며,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평신도 사역 계발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평신도 중심의 팀 사역을 연구함으로써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를 통한 미래 교회의 대안으로서 건강한 교회 상을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수직적 계급화 된 조직과 지시적 사역 구도 속에서 한 세기를 지나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다원주의 시대로서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상대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로서 교회도 이러한 시대적 사조와 조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조 하에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전통적 구조와 조직에서 벗어나 미래를 새롭게 열

어갈 비전과 교회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교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평신도 사역개발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은 매우 중요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실험적 과정을 거쳐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광명교회는 한국교회의 보편적 가치와 전통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33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 교회조직과 지시적 사역구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이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보수적 교회에서 의도되고, 시행된 실험적 도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는 본 논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여 구조와 행정, 사역 등 교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교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세부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광명교회는 33년 된 전형적인 전통적 교회이다. 원로목사 한 사람의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세워져 왔고, 교회사역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은퇴 이후 광명교회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요청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의 부임으로 인해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다.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교회 상에 대한 변화의 요청도 동반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 권위주의적 교회 조직에 대한 변화의 요청이다. 교회 권위주의적 요소는 상하의 계급적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청이며, 이것은 곧 다원주의 시대의 일반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 내에서도 권위주의적이며 계급적 구조와 사고방식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있음을 말한다.

전통적인 구조에 대한 시대정신과 문화, 가치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사역의 효율

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고 작은 변화이지만 권위주의적인 조직과 색채, 분위기 용어 등에 대한 수정과 변화, 모든 사람들이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및 조직, 용어로의 전환 등은 교회 사역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높이는 큰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회 내 곳곳에 배여 있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과감하게 벗어버린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있어서는 큰 저항과 같은 도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동기부여라는 긍정적 도전이 되기도 한다.

둘째, 평신도들의 사역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평신도들과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에 깊이 고민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날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의 다양한 신앙욕구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목회자 중심으로만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로서는 한계가 있다. 사실, 오늘 날 한국교회는 20/80 팔레트의 법칙<sup>1)</sup>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너무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젊은 30대, 극히 예배참여, 봉사, 헌신에 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필요에 따라 필수적인 것만 참여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교회 대내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겠다.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팀사역은 이러한 교회 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의 태도로 교회를 출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내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된다.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팀사역은 바로 이런 목적을 두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교회성장의 모델 제시와 적용을 위해서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교회성장의 정체 및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교회의 교인 수의 정체 및 감소, 교회 영향력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성장 동력에 대한 모델을 찾고 이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Richard Koch, *80/20법칙*, 공병호 역 (서울: 21세기 북스, 1997), 20.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은 광명교회를 통해 제시하는 방안이지만, 광명교회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에도 적용 가능성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광명교회의 실제적인 교회성장과 부흥을 위함이다. 본 논문은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광명교회에서의 실제적인 교회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시행된 것이다. 즉 새로운 리더십 교체에 따른 광명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광명교회에서 시도된 것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평신도 사역과 개발에 관한 문헌과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조사 연구와 함께 사역 현장을 다루는 현장 조사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시대에 부합한 교회 구조 변화, 즉 광명교회 내 평신도 팀사역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광명교회 교인들의 사역개발을 통한 사역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광명교회 내에서의 실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평신도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이해로 교회의 본질을 평신도 사역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의 중요성 및 정체성과 평신도 사역의 원리를 다루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통한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사례연구로, 현재 평신도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구촌교회의 평신도 사역과 전통적 교회구조 안에 새롭게 도입된 평신도 사역으로 교회 활성화 모델을 보여준 부산의 안락교회 평신도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개발을 위한 광명교회 주변 지역의 상황 분석과 교회적 상황, 교회의 역사, 목회철학 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의 여정들을 살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실재를 다룰 것이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진행된 평신도 사역을 위한 사역자 양육훈련의 실제와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조직 및 다섯 개 공동체의 구체적인 평신도 사역의 사역팀의 사역 상황들을 살펴보고 평신도사역 전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 사역 후 교회의 변화된 상황들을 비교하여 평신도 사역개발이 가져다 준 교회 활성화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할 것이며, 또한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과 비전에 대해 언급하고 평신도 사역 개발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언하며 본 논문을 맺을 것이다.

## 제 2 장

###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과 평신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계속해서 본 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및 평신도 사역의 원리도 논의할 것이다.

#### 제 1 절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이해

본 절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신학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먼저 교회의 본질을 평신도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을 살펴보고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 1. 교회의 본질과 평신도 사역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사역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 본질적 관점에서 볼 때, 평신도 사역 개발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의 머리”(골 1:8, 개역개정)로,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를

‘지체의 각 부분’으로 묘사한다(고전 12:29).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 관계 속에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게 됨을 말해 준다.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몸을 의미한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팀사역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된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회복의 현장으로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수직적 관계회복과 수평적 관계 회복의 현장이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는 피조물 세계와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현장인 것이다. 전통적 교회의 갈등과 상처의 경험은 이러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단절과 파괴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가 평신도 사역을 통해 교회와의 갈등과 상처의 극복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작게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자신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 회복인 것이다.

셋째, 교제(koinonia)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이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이다.<sup>2)</sup> 교제는 교회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성도간의 연합과 교제가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도간의 연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 성장의 바탕에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그들의 교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제였다. 이러한 교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는 하나 됨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서울: 성문출판사, 1993), 81.

성경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오직 권하여...”(히 10:24-25),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벧전 4:9), “은사를 받은 대로...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롬 12:16; 골 3:15), “서로 판단하지 말고”(롬 14:19),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롬 14:19) 등이다.

성경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화해를 말한다.<sup>3)</sup>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의 화해를 말한다. 교회 내 교인들 간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복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평신도 사역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는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화해는 용서를 전제로 한다.<sup>4)</sup>

넷째, 돌봄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sup>5)</sup>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새 가족들을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여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롬 14:1-2). 즉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를 환영하고 용납하며 이들에게 유효적절한 배려와 돌봄을 주라는 말이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서 양육시키고, 이

3) Roger Hurdling, *성경과 상담*, 문희경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209-212.

4) Ibid., 213-215.

5) Ibid., 126-127.

들이 장성하여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인도 하신다”<sup>6)</sup>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그의 태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시며 젖을 먹여 양육하시고 돌보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늘 풍성한 위로와 돌봄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론의 본질로서 ‘불러내심’을 따르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로 쓰인 헬라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으로부터’라는 뜻의 ‘에크(εκ)’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칼레오(καλεω)’가 합성된 것으로 문자적으로 ‘~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부름 받고 나와 그 분을 공개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무리들”(마 16:18)을 칭하게 되었고, 점차 유형, 무형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발전하여 왔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성장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차원으로서,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도 해석되어야 한다.

여섯째,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난 세월 다섯 남편이나 두었고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면서도 온전한 예배로의 초청을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개인 회복 차원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온전한 예배 회복은 전인적 인간회복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곱째,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는 교회 안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요 부름이다.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부르심이다. 평신도 사역계발은 교회와 성도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요청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는 먼저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 회

---

6) Calvin, *기독교강요* IV, 11.

복과하는 것이다. 교회와의 건강한 관계정립과 하나님의 요청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군으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보여준다.

## 2.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교회다.<sup>7)</sup> 즉, 첫째, 교회의 통일성(unity) 둘째, 교회의 거룩성(holiness) 셋째,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 넷째, 교회의 사도성(apostolicity) 등이다. 이러한 네 가지 본질에 대한 추구는 평신도 사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역에 그 핵심이 있다. 다음은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기초로 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구조나 직무, 교리나 프로그램 안에서 발견 될 수 없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 4:4-6)라는 말씀에 근거한 독특한 통일성이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는 교제의 통일성인 것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통일성이다.<sup>8)</sup>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이며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성도들은 서로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연합을 이룬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이란 성도들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성도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신도 사역은 나아가야 한다.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실현할 때 평신도 사역은 본질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7)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9), 444.

8) Ibid., 445.

개혁교회는 교회를 유기체인 몸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유형의 제도를 가진 기관인 성전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나 신약성경은 교회를 몸의 지체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엡 4:4; 5:23-30),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버리 되심은 교회의 주권(엡 1:23)을 말한다.

본 연구자가 평신도 사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장하는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sup>9)</sup>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교회 내 모든 사역의 결정권과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모든 사람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직제의 구분 없이 버리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동등한 지체로서 모두 그리스도의 주도권에 순응해야 한다는 대등함과 평등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 동안에 성육신 하여 인간의 육체 안에서 활동하신 것과 같이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활동은 목회자 안에만 있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회자에게만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이다.

셋째,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강조하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합해야 한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체험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0)</sup>

모든 성도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야 함을 말해준다. 신현광은 성도란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도 신령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성도란 공동의 신앙고백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이나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의 교통을 본질로 한다고 하였다.<sup>11)</sup>

9)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시라.”

10)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61-62.

11)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20.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그의 백성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와도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은 모임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과의 연결이다.<sup>12)</sup>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통일성이 들어 있다. 이러한 통일성 안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차별성이 없고 동등하며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통일성에 대해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그의 책, *교회론*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며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 있고 미래의 영광스런 소망을 같이 품는다”<sup>13)</sup>고 하였는데, 이 통일성이라는 의미 안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도라 칭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몸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상호관계 즉 각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관계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오직 교회의 몸 된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sup>14)</sup>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평신도들이 몸과 지체론을 가지게 될 때 직제에 대한 혼란과 왜곡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평신도들을 사역의 주체로堂堂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나. 교회의 거룩성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의미, 즉 외형상 덜 거룩하게 보이는 자들과 자신을 차별하는 도덕적 우월성의 태도가 아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함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죄인과 낫서 자들로부터 초연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sup>15)</sup>

12) Michael Slaughter, &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16.

13) Louis Berkhof, *교회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44-45.

14) Larry Crabb, *교회를 교회되게*,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207.

15)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446.



평신도 사역자 개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성품과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 사람들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길러져야 한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영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며 주위에 외로운 이웃과 상처 입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서 구별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별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곧 말씀중심의 교회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역이다. 구별된 말씀의 가치에 따르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평신도 사역의 내용과 방향성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신도 사역은 인간중심적인 사역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역, 말씀 중심의 사역이다. 다양한 평신도 사역의 실체는 영적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방법론을 추구해야 한다. 때때로 한국교회는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세속적 가치와 영적 가치의 혼돈 속에서 세속화의 과정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평신도 사역은 철저하게 영적 가치와 복음적 실천 방법론을 추구할 때 구별된 가치, 즉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 다. 교회의 보편성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교회의 보편성은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다. 많은 측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비록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는 면에서 보편적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보편성의 의미를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이런 의미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 교회는 당파적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당파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sup>16)</sup> 보편적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평신도 사역은 교회 내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16)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448.

문과 같아야 하며, 교회 외적으로도 불신자들에게 열린 문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모든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내 직분이 계급적 가치를 띄는 것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 라. 교회의 사도성

몇몇 교회에 따르면,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는 신약의 사도들과 역사적 연속성에 있는 주교들이 교회회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정당하게 안수를 받는데 있다. 교회의 사도성은 안수 받은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될 수 없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또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교회가 예언자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따르고자 하는 한, 교회는 사도적이다.<sup>17)</sup>

교회의 궁극적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한 영혼구원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완성을 추구한다. 다양한 평신도 사역이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이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이 이러한 사도성을 상실할 때 세속적 가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곧 인간중심의 사역으로의 변질을 의미한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엡 2:20).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받았다고 주장하며 교황 중심 체제를 만들었으나 사실 교회는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널드 프란스(Ronald T. France)는 그의 책, *마태신학*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받았다는 것과 교황을 유일한 사도직 계승자라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 세워졌고 이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교회의 권위

17) Ibid.

는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 위임된 권위이기에 제도나 직제에 의해 주어진 정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와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 지는 동적인 권위일 뿐이다.<sup>18)</sup>

가톨릭이 교회의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며 교황이 계보적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반면 개혁신교회는 사도라는 직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받았던 사명, 즉 사도성이 계승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르는 Hans Küng 조차도 교회의 사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시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하였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전승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도직은 누군가 대리 할 수 없는 일회적이며 반복이 불가능한 고유의 직이다. 직접 목격자로서의 사도직, 예수로부터 직접 파송 받은 사도직의 반복과 계속은 없다. 다만 그 사도들이 행했던 과업과 직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남은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나 교역자만이 사도성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를 포함하여 전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다.<sup>19)</sup>

이는 사도직 자체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과업과 역할인 사도성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계승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옥한흠은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명령받았던 대 사명 즉, 선교적 소명을 평신도가 계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신학적으로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sup>20)</sup>고 지적하였다.

존 스토틀 (John Stott)도 사도성의 계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도들로부터의 계승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그 가르침 자체에 있다. 사도들의 전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의 사역이나 권위나 직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전통이란 사도들로부터 그 다음 세대들을 거쳐 내려온 변치 않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올림픽 성화와 같이 계속하여 전달되어 왔다.<sup>21)</sup>

18) Ronald T. France, *마태신학*, 이한수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400-401.

19)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동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9), 145-151.

2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96.

본 연구자도 교회가 예수로부터 위임 받은 것은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성으로서 사도들이 행했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모든 소명을 받았다고 여긴다. 교회가 예수께 받은 사도성은 결국 교회안의 목사만 받은 소명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예수께 받은 소명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목사만을 제사장으로 여겨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주의(hierarchies)만 아니라 목사를 제사장으로 아는 교직주의(clericalism)도 성경적인 목사관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sup>22)</sup> 따라서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는 평신도가 초대 교회 사도들처럼 예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제사장이면서 소명자임을 인식하는데서 부터 평신도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의 모든 평신도들의 사도성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물론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평신도의 자리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의 교회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을 따라 평신도들을 세상을 향한 사도직으로 인식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종속된 사역자로만 이해한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대교회의 사도직과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형의 사도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3. 평신도의 이해

평신도 (laity)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라이코스(laikos)에서 온 말로 3세기 이후부터 교회의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세월의 흐름에 따라 ‘평신도’라는 단어가 이류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전락하였다.<sup>23)</sup>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 원로교수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신약적 의미에서 ‘평신도’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내포하는 대단히 영예로운 호칭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21) John R. W. Stott, *디모데후서 강해: 복음을 굳게 지키라*, BST 시리즈, 김영배 역(서울: IVP, 2008), 51, 52.

22) 김영한 편,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 지성인* (서울: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 1987), 26.

23) 황청일, *교회성장과 평신도*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사, 2005), 224.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출 19:6; 뱀전 2:9).<sup>24)</sup>

본래는 ‘평신도’라는 단어는 순전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른 중요한 성경적 용어들(예: ‘소명’과 ‘봉사’)등과 함께 완전히 세속화 되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평신도’가 다양한 지식과 과학 분야에서 발언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전락했다. 말하자면 ‘무지하다’라는 개념을 획득하였다.<sup>25)</sup> 교회의 주체로서의 전통적인 평신도 이해는 성직자들을 높은 위치에 두고, 평신도는 낮은 위치에 둬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치를 상하 구분의 계급적 위치로 보았으나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평신도의 위치를 성직자보다 계급적으로 낮게 보려는 이원론적 관계가 아닌 단지 기능적으로 부여 받은 임무에만 차이를 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라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우월한 성직자 계급과 열등한 평신도 계급간의 큰 구분이 로마교회의 대 법전에 철저히 설명되어 있다. ‘성직자 신분’과 ‘평신도’는 각각 고유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전자는 성례를 집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지도를 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는 평신도를 수동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sup>26)</sup> 그러나 평신도의 의미는 다양하게 불려지고 다음과 같이 교회 공동체에 사용되고 있다.

첫째,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전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있는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은 현실적으로 교회의 기관과 조직”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적 교회정치”가 따른다. 이러한 일에 관해서 평신도들은 넓은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24)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12.

25) Handrik kraemer, *평신도 신학 (A Theology of Laity)*,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55-56.

26) Ibid., 60.

27) 이사무엘, *평신도를 부른다* (서울: 성광문화사, 1999), 90-91.

둘째, “평신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평신도의 제사장직은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 “만인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 세계에 대한 그의 언약의 중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차별이 없게 되었다. “제사장은 중간에 그 누구의 중재도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sup>28)</sup>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응답적 차원의 것이다.

셋째, “평신도는 교회의 설교와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는 목회자가 수행해야 할 특수한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설교와 교육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제도교회 내에서 예언적 직능에 참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며 또 가르쳐야 한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고려한다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는 누구나 말씀의 증거자로 받았다.”<sup>29)</sup>

넷째, “평신도는 청지기”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11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데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봉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위해서 거처 배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봉사는 남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맥락 속에서 평신도의 만인제사장도 가능한 것이다. 만인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자기도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이다.<sup>30)</sup>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평신도의 교회에서의 의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28) 이사무엘, *평신도를 부른다*, 87.

29) 정종진, “효과적인 인적관리와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 제자 훈련 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3.

30) Ibid., 14.

있으며, 그 외에도 평신도들은 세상에서의 그들이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제 2 절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앞 절에서는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적 요청과 영적 잠재력, 평신도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1. 시대적 요청

21세기는 평신도 목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옥한흠은 그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평신도 운동은 세상을 위한 참 교회 상을 회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31)</sup>고 말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왔던 평신도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평신도와 성직자는 구별이 없으며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라는 것이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 성령의 전이라는 측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구별이 없으며 동시에 교직은 엄연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임을 명심해야 한다.<sup>32)</sup>

평신도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교회가 외적 부흥과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평신도들의 사명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평신도는 교회의 9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의 부흥이나 선교, 교육, 봉사 등 모든 분야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 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일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3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4.

32) Ibid., 31.

## 2. 평신도의 영적 잠재력

평신도의 영적 잠재력의 개발은 교회 기능상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옥한흠은 평신도를 ‘잠자는 거인’에 비유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33)</sup>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은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는 누구나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평신도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요. 둘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셋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넷째, 중보하는 기능이다. 또한 교회 갱신의 사명,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교회 갱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교회사역에 참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다. 평신도는 직능상으로 볼 때 성직자와 구별되나 기본적으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직자와 동일하며 또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평신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서, 전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상담하는 일은 신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함으로 하나님나라 구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전하여야 한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저자인 크리스천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건강하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특성 중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 했다.<sup>34)</sup> 이러한 교회들은 평신도를 목회자가 선정해 놓은 목표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평신도 리더가 되어 또 다른 교인들을 양육하고 섬기도록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훈련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하였다.<sup>35)</sup> 교회

3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45.

3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정진우, 박동진, 오태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22-37. 나머지 7지 특성은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라 했다.

35) Ibid.



가 건강하고 자연적 성장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평신도들을 교회 사역의 능동적 주체로 세우며 훈련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온 세상을 복음화 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김성욱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신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시대마다 전도와 교회성장, 그리고 세계선교에 그들의 삶과 일생을 바쳐왔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인 만인 제사장론의 진리가 반드시 재강조 되어야 하며, 아울러 평신도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교회 목회현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소명인 세계복음화를 수행하는데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6)</sup>

평신도들의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일은 교회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일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할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다. 교회의 사도성의 계승을 위해 사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평신도들에게 사도의 사역을 계승케 하고, 평신도들을 영적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지름길이며 동시에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참여시키는 계기도 되지만 평신도 영적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자체가 전체 평신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평신도 영적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좋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이다.

### 3. 평신도 패러다임

지금까지 전통적 교회에서는 평신도에 대하여 교회 사역의 능동적 주체로 보기 보다는 그저 목회자의 조력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교회의 평신도 자아상은 홍영기의 인용에 볼 수 있듯이 모든 성도에게 사도성이 주어져 제사장과 사도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만인제사장을 주장한 개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저버린 것이다.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는 평신도 혁명이었다.

루터가 볼 때 가톨릭교회의 계층 구조적 성직제도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루터의 만인제사직 이해는 성직자 시대에서 평신도 시대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중세의 왜곡

36)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168-170.

되고 간헐 평신도의 신분을 회복시켜 그들의 활동을 교회를 개방시켰다는 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혁명이었다.<sup>37)</sup>

전통적 교회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자였다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평신도와 목회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동역자라는 점이다. 교회 역사가운데서 소외된 평신도의 위치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전통적 교회 안에서는 그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평신도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객체로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가 교회에서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사역을 위한 평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신도를 교회의 주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제는 첫째, 모든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즉, 평신도 사역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세상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둘째, 평신도들이 각자가 맡은 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셋째, 구체적인 훈련을 위하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완성은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 활성화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미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미래목회를 대중적 카리스마 목회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한 평신도 중심의 목회라고 한다.<sup>38)</sup>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이며,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 양육에 시간과 힘과 재정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평신도 훈련은 미래교회에서 중요한 목회내용이 될 것이다.

### 제 3 절 평신도 사역의 원리

본 절에서는 평신도를 통한 팀 사역을 실천함에 있어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사

37) 홍영기,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59.

38)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96.

역의 원리인 유기체적인 원리, 직분 중심이 아닌 은사 중심의 원리, 은사개발 및 배치의 원리, 그리고 섬김의 원리 등을 살펴 볼 것이다.

### 1. 유기체적 원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움으로 팀 사역을 실천해 감에 있어 사역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유기체적 원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전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있는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은 현실적으로 교회의 기관과 조직”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적 교회정치”가 따른다. 이러한 일에 관해서 평신도들은 넓은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 몸에 속한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팀 사역을 위한 평신도 사역의 원리는 과업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중심되어야 하며 목표 지향적이기 보다는 관계 지향적이어야 하며 권위 주의적이기 보다는 ‘함께’ 합의 동역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직분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원리

전통적 교회 구조에서는 교권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여서 사역의 주체가 목회자로 국한되거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 중직자들이 사역을 독점하는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기에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거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평신도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 구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인이라면 누구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경적 사역의 원리를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9) 이사무엘, 평신도를 부른다, 90-91.

바람직한 사역의 구조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이다. 또한 목회사역에 있어서도 담임목사가 모든 목회사역을 독점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전문 사역자가 각 영역에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담임목사의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김으로 교인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는 직분자 중심의 사역보다는 역할과 은사에 따라 유기체적으로 기능하는 동역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구조도 제도적이고 권위적이며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유기적이고 수평적이며 기능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

### 3. 은사 개발 및 배치의 원리

평신도 사역의 원리 세 번째는 은사 개발 및 배치의 원리다. 평신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은사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교회는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지닌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바로 알고 자신의 열정과 스타일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크고 작음이 있거나 옳고 그름이 없다. 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은사는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은사배치사역이라 한다. 은사배치는 개인의 역량을 한 목표로 집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은사를 따라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평신도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고 건강성을 회복하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 4. 섬김의 원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인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섬기려 오셨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분으로 계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실존적 목적이요, 본질적인 사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평신도 사역의 원리는 철저히 상호 존중과 섬김을 그 바탕으로 한다. 팀 사역 역시 사역 이전에 팀원 간의 관계가 우선적이다. 팀원 간의 관계가 팀 사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팀원 간의 서로를 위한 섬김은 건강한 팀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른 사람의 은사, 사역, 그리고 스타일을 존중해 주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기쁨으로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실수 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라”<sup>40)</sup>는 말처럼 상호 존경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팀 사역의 불을 계속 지펴가야 한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막 10:45; 요 13:12-15).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무리 섬기고 또 섬겨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데서 팀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40) Wayne Cordeiro, *팀으로 이끄는 교회*, 김정섭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1), 157.

### 제 3 장

## 평신도 사역 개발 교회 사례 연구

앞 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비롯하여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및 평신도 사역의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례로 지구촌교회와 안락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지구촌 교회<sup>41)</sup>

본 절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지구촌교회의 평신도 사역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지구촌 교회의 일반적 현황으로 교회의 역사와 목회철학을 살펴보고, 이어 지구촌교회 사역의 핵심가치와 평신도 사역의 조직과 부서별 사역의 역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구촌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용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교회소개

지구촌교회는 1994년 1월 첫 주일 이동원목사의 개척으로 시작되었다. 지구촌교회의 비전은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sup>42)</sup>이며, 목장교회를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써 가정, 직장,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지구촌 네트워크 확장에 헌신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진재혁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섬

41) 참조,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사역매뉴얼* (서울: 두란노서원, 2011).

42) Ibid., 14.

기고 있다.

지구촌교회의 역사는 6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개척시대이다. 1993년 미국에서 목회 중이던 이동원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해 11월 경기도 수지의 신경 스메트 복지관 강당에서 6명이 창립준비예배를 드림으로 지구촌 교회가 시작되었다.

둘째, 태동기이다. 1994년 1월 첫 주일에 300여 교우들과 신경 스메트 복지관 강당에서 정식 창립예배를 그리고 그 후 부흥을 더해 가며 예배 1년 만엔 1994년 장년 출석 교인 1,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분당 정자동 시대 (1995년 8월-1998년 3월)이다. 분당 정자동 성심빌딩의 지하 분당과 4층의 교육관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구촌교회의 분당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장년 출석 1,000명에서 4,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여 인접한 4층 빌딩 전체를 교육관으로 임대할 정도로 폭발적 성장을 한 기간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지구촌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틀이 확립된 시기로서 이동원 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로 새 생명, 새 가족, 새 공동체반 등이 운영되어 전 교우가 일꾼으로 훈련되었다. 아울러 이웃사랑축제를 위시한 연례적인 교회 프로그램과 의욕적인 세계 선교전략의 그림을 그린 기간이었다.

넷째, 수지 신봉리 시대(1998년 4월-2003년 4월)이다. 분당으로 예배당을 옮긴지 2년이 못되어 주일 다섯 번의 예배로 감당이 안 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지구촌교회는 다시 수지 신봉리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한 번의 이전을 하였다. 1999년 부설기관으로 목회리더십 연구소를 발족하여 한국 목회자의 리더십과 영성, 설교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월에는 교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배, 선교, 봉사, 친교의 소임을 소그룹 목장에 위임하여 교회와 목장이 동역하는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시도했다.

다섯째, 수지와 분당의 두 날개 예배당시대(2003년 4월-2010년 12월)이다. 지구촌교회는 수지의 예배당이 다시금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03년 4월 분당 미금의 쇼팽물 건물에 또 하나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비전센터로 명명하였다. 수지 신봉리 성전과 분당 비전 센터가 광케이블을 통한 쌍방향 송수신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 예배당 시대가 되었다. 2004년에는 지구촌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1회 셀 컨퍼런스

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목장교회의 유익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여섯째는 동역의 시대 (2011년 1월-현재)이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17년간 사역해 온 이동원 목사는 2010년 65세로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2010년 12월 26일 이동원 원로목사 추대 및 진재혁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통해 동역의 시대를 맞이했다.

## 2. 교회 상황<sup>43)</sup>과 평신도 사역

지구촌교회는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여 17년간 사역해 온 이동원 목사가 2010년 65세로 조기 은퇴 이후 2대 담임목사로 진재혁 목사가 취임하였다. 진재혁 목사는 지구촌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민족 치유 세상변화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3N3G<sup>44)</sup>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완수를 위해 목장교회와 사역의 초점을 3N3G에 맞추며 지구촌교회 공동체를 통해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지구촌교회 평신도 사역의 핵심가치는 크게 열 가지로 볼 수 있는데<sup>45)</sup> 첫째는 셀 교회 공동체로써 목장사역 (셀 사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둘째는 훈련공동체로써 말씀공부와 말씀 나눔을 통한 훈련을 중요한 사역가치로 삼는다. 셋째는 치유공동체로써 가정 사역과 직장 사역을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역의 가치실현의 장으로 이해한다. 넷째는 비전 공동체로써 청소년과 젊은이를 중요한 사역 자산으로 이해한다. 다섯째는 선교 공동체로써 타문화권 선교와 국내선교, 사회봉사를 지구촌교회의 대외 사역의 우선순위를 삼는다. 여섯째는 중보공동체로써 사역실현의 도구로 중보기도를 중시한다. 일곱째는 영성공동체로써 개인 영성의 핵심으로 영성을 중시한다. 여덟째는 자율공동체로써 자유와 책임을 사역자의 사역 태도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아홉째는 은혜공동체로써 모든 사역자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사역한다. 열째는 복음주의 공동체로써 지구촌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연대하는 협력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43) [www.jiguchon.org](http://www.jiguchon.org)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44) 민족치유를 위한 3N은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이고, 세상변화를 위한 3G는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이다.

45)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사역매뉴얼*, 22.



지구촌교회 사역은 큰 항목으로 1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역조정실, 장년목장 사역센터, 젊은이 목장 사역센터, 교육목장 사역센터, 글로벌 목장 사역센터, 예배부, 해외 선교부, 교육훈련부, 사회복지부, 국내전도부, 사무국, 제정국, 홈스쿨링 아카데미, 필그림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촌교회 사역 부서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첫째, 사역조정실은 교회 사역에 대한 중·단기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교회 전반에 대한 실무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또한 각 부서 간의 사역을 조정하며, 교역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사역조정실 안에는 제정, 사무지원, 장학위원회, 탐방안내 사역, E-안내사역, 차량사역팀이 소속되어 있다.

둘째, 장년목장 사역센터는 분당 9개 지구, 수지 8개 지구, 시니어 지구 등 장년목장교회 사역에 대한 연구, 기획, 행정을 담당하며 전체 목자 훈련을 주관한다.

셋째, 젊은이 목장 사역센터는 대학지구, 청년1지구, 청년 2지구 등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목장교회 사역을 통해 지구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합당한 정체성을 갖도록 연구, 기획, 행정과 목자 훈련을 담당한다.

넷째, 교육목장 사역센터는 미취학지구, 어린이지구, 청소년지구에 이르는 다음세대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세대 평신도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한 연구, 기획, 행정과 교육목자 훈련을 담당한다.

다섯째, 글로벌목장 사역센터는 영어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이주 근로자 예배 등 지구촌 열방에서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사역을 통해 구원, 치유, 영적 훈련을 체험하도록 연구, 기획, 행정과 목자 훈련을 담당한다. 글로벌 목장사역센터 안에는 언어권별 6개 예배가 있다.

여섯째, 예배부는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영감 있는 예배모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주일과 주중 공동체 예배모임을 중심으로 예배를 기획, 준비, 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예배부 안에는 경배와 찬양팀, 예배봉사 사역팀, 음악 사역팀, 역사자료문서 선교사역, 미디어 사역이 소속되어 있다.

일곱째, 선교부는 지구촌교회의 2020비전의 성취 및 주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을

46)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사역매뉴얼*, 29.

위해 해외, 국내, 의료 등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역하며, 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훈련과 파송, 후원을 담당한다. 선교부에는 MET 사역, 선교사 지원, 의료선교가 소속되어 있다. 국내 선교 안에는 7개 선교단이 있다.

여덟째, 교육훈련부는 지구촌의 성도들이 목장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게 돕고, 지구촌교회의 필수 성경공부 과정과 평신도 훈련 과정의 모든 성경공부 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을 통해 개인과 가정을 세우며, 교회 내·외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교육훈련부 세부 사역은 제자훈련, 도서관리, 전도폭발, 가정 사역, 목장은사 개발 사역, 상담사역 (글로벌 상담소), 중보기도사역 등이 있다.

아홉째, 사회복지부는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명령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훈련·조직하여 봉사현장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복지부 사역으로는 사회봉사, 호스피스, 문화사역, 경조사역, 장학기금, 아름학교 등이 있다.

열째, 사무국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무행정 및 시설관리, 각종 사역지원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세부 사역으로는 사무행정팀, 시설관리팀, 방송지원팀, 전산팀, 사무지원 등이 있다.

열한 번째, 재정국은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을 잘 관리, 운영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회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열두 번째,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홈스쿨링 지원사역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홈스쿨링 사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훈련 조직하여 교회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열세 번째, 필그림 하우스는 수도원의 지혜를 빌려 온 현대적인 기독교 영성센터이며 쉼터이다. 지구촌교회 영혼의 레노바레 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열네 번째, 사회복지 법인은 지역사회 의 욕구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회의 사회적 부르심을 실천하며 성도들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 세부 사역으로는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지구촌 장애인 복지센터, 지구촌 미션홈 등이 있다.

### 3. 평가

지구촌 교회는 1994년 개척 예배 1년 만에 장년 출석 교인 1,000여 명에 이르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1995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의 분당 정자동 시대 당시 3년여 기간의 짧은 시간 동안 성도 1,000에서 4,000명 교회로 성장하는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그 시기는 지구촌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틀이 확립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구촌교회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동원 목사의 영성과 설교는 물론 이동원 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를 가지고 세 생명, 세 가족, 세 공동체반 등의 제자훈련들을 통하여 일꾼이 세워지고 훈련된 성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구촌교회가 표방하는 셀 사역 역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의 동역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건강한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구촌교회는 현재 정확하게 조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역팀이 활발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다. 사역팀이 많다는 것은 곧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좋은 모델 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현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사역 공동체가 될 때 침체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사역의 대그룹 항목에서 어떤 항목은 ‘센터’라는 명칭을, 어떤 항목은 ‘부’로, 어떤 항목은 ‘국’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의 계발을 위한 지구촌교회 사역 조직은 평신도 사역의 객관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구촌교회의 역사와 목회 철학, 사역 조직을 살펴보면서 지구촌교회를 셀 (목장)사역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평신도 사역을 통해 훈련, 치유, 선교, 중보, 영성훈련, 은사사역 등을 통해 평신도 사역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가는 모델로 이해했다. 그래서 광명교회 비전을 세울 때 지구촌교회 모델에서의 적용점을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의 건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목장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고 또 한 개인이 하나의 교회로써의 역할을 은사에 맞게 감당함으로 유기체적 교회상을 만드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으려고 하였다.

지구촌교회의 사역 매뉴얼에서 착안된 평신도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평신도를 사역하게 하는 것,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준비하는 첫 단추는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훈련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 양육과정 커리큘럼 체계를 세우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은사를 따라 사역하도록 배치하는 일을 중점 목회 방향으로 삼을 수 있었다.

## 제 2 절 안락교회 사례

본 절에서는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해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에 대한 정체성 왜곡과 전통적 교회들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 교회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부산의 안락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안락교회 사례에서 언급한 전통적 교회란 교회의 설립 년도에 상관없이 첫째,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인 교회, 둘째, 기존의 제도와 관습에 매여 시대와 세상을 선도하는 문화적 탁월성과 유연성,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교회 셋째, 영성과 복음이 희석되어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세속화 되어 현대의 회중에게 외면당하여 세상 속에서 고립되는 교회 넷째, 소수의 목회자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고 평신도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인 교회를 의미한다.<sup>47)</sup>

### 1. 교회소개

안락교회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서 1968년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47) 윤동일,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 방안: 안락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12-13.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다. 현재는 오영만 원로목사를 이어 제4대 목사로 2008년 12월에 부임한 윤동일 목사가 7년째 목회하고 있다.

안락교회의 장점이라면 47년의 역사가운데 3대인 오영만 목사를 23년간 모시고 원로목사로 배출 했다는 것 자체가 평안한 교회라는 증거이며 훌륭하게 목회하신 원로목사도 귀하지만 이를 함께 해온 교우들도 크게 칭찬 받을 만한 것이다.<sup>48)</sup>

안락교회의 사명선언문은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5대 비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은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둘째는 제자삼아 양육 받는 공동체, 셋째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공동체, 넷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다섯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이다.<sup>49)</sup> 안락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안락교회 목회철학은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의 현재적인 몸이시다(마 18:20; 28:20; 요 14:16-18). 둘째, 안락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엡 1:22). 셋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마 28:18-20)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확증케 하고 제자삼아 훈련하라 하시는데 그 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엡 4:4) 주신 각양의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sup>50)</sup>

안락교회는 부산 전역에서 세대교체가 제일 잘 된 교회, 분쟁이 없고 평안한 교회, 좋은 원로목사를 배출한 교회, 동래구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교회,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소문이 나고 있다.<sup>51)</sup>

48)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 방안: 안락교회를 중심으로”, 69.

49) www.allak.or.kr (안락교회 홈페이지)

50) 윤동일,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 방안-안락교회를 중심으로,” 80.

51) Ibid., 72.

## 2. 교회 상황과 평신도사역<sup>52)</sup>

윤동일 목사가 부임 당시 안락교회는 3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교인이 70퍼센트일 정도로 지역사회에 속해 제한성을 가진 속칭 동네 교회였다. 동래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과 존재감은 적고 다만 안락동, 낙민동, 명장동 안에 속한 전형적인 지역교회로 교인 대부분이 타 교회에서 수평이동 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대해서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령적으로는 노령화 되어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교회였다.

교인의 노령화는 물론 새로운 젊은 세대 유입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부산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도 인력을 빼앗기는 현실인데다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사역할 기회나 장이 허락되지 않아 젊은이 사역이 활성화 되어 있는 주변교회<sup>53)</sup>로 점차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중직자 자녀 가운데 50퍼센트 가량이 타 교회에 출석하였기에 교인들의 자녀들에게 본 교회 출석을 권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 3-40대가 감소하니 자연히 교회학교의 다음세대가 감소하여 교회교육의 위기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23년간 오직 예배와 심방만으로 성장한 전통적 교회로 제자훈련과 선교,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박성을 느끼지 않는 교회였다. 시설 또한 노후 되어 외부인들이 외형만 보면 100년이 넘는 교회로 오해할 정도였고 교육관은 안전진단을 필요로 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주차장 역시 협소하여 10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차량을 소유한 젊은 교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마는 상황이었다.

또한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안락교회의 부임 전 상황을 보면, 안락교회안의 핵심 리더인 목회자, 당회원, 향존직들은 조직을 일정한 방향으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며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동일 목사는 전통적 교회 정서상 안정성을 원하지 선교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나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시작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안락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52) 윤동일,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 방안-안락교회를 중심으로,” 62-102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53)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풍성한 교회로 주로 이동하였다.

위하여 교회의 장·단점, 교회적, 지역적, 리더십의 영적인 장애 등을 파악한 윤동일 목사는 항존 직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목회철학 즉 사명언문, 비전, 핵심가치, 전략 등을 부임 후 1년 동안 설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침으로 평신도들과 함께 목회철학을 만들어 갔다.

안락교회의 평신도 사역은 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윤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회 조직이 노인 대학국, 청년국, 장학국, 교육행정국, 경조국, 급식국, 선교국, 사회문화국, 예배방송국, 찬양국, 관리국, 재정국, 차량관리국의 1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국장은 당회원이 맡고 있었다. 각 국의 사역은 한 달에 한 번 당회에서 보고를 받고 건의를 의결하고 있었는데 보고사항으로 끝날 미미한 사안이거나 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안건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안건이 당회에 올라와 난상토론이 되어 결국 시간만 소비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는 13개국을 유사 국끼리 묶어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청년국, 장학국, 교육행정국은 교육위원회로 경조국, 급식국은 봉사위원회, 선교국, 사회문화국은 선교위원회, 예배방송국, 찬양국은 예배위원회, 관리국, 재정국, 차량관리국은 관리위원회로 묶어서 5개의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5개의 위원회는 소속된 국장으로 구성하되 소속 국장들 안에서 선임 장로가 위원장으로 하여 당회가 열리기 한 주전 기획위원회로 모여 5개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당회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예배위원회 안에는 예배 방송국(7개 부)과 찬양국(7개 부)이 있고, 봉사위원회 안에는 경조국(3개 부), 급식국이 있다. 선교위원회 안에는 선교국(7개 부), 사회문화국(7개 부), 교육위원회 안에는 교육행정국(10개 부), 양육국(4개 부), 청년국(2개 부), 장학국, 경로대학국이 있다. 관리위원회 안에는 차량관리국(2개 부), 관리국(6개 부), 재정국이 있고, 특별위원회 안에는 건축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부, 인사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가 있다.<sup>54)</sup>

안락교회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한 심방사역과 평신도 강사 선발과 양육을 통한 평신도 사역 활성화, 제자훈련을 통한 순장 배출이라 하겠다.

54) 참고. [www.allak.or.kr](http://www.allak.or.kr) (안락교회 홈페이지)

안락교회의 심방사역은 주로 부교역자 특히 여전도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정작 교회를 돌보고 심방하고 상담하고 사랑하는 사역과 역할에서 권사들의 역할이 미미한 점을 발견하고 심방사역을 평신도인 권사에게 이양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심방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방법은 이전의 여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권사에게 대표순장 직분을 주어 임기 2년을 섬기게 하되 연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표 순장직에 대해서는 일생에 단 한번 대표순장으로 봉사하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다.

평신도 강사 선발이란 안락교회 4-BASE 제자훈련 과정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원을 선발하여 양육함을 말한다. 안락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담임목사와 평신도 사역을 함께 할 핵심 리더 그룹들을 양육함으로 평신도들로 구성된 핵심 리더그룹들과 함께 실제적인 전통적 교회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 3. 평가

안락교회는 제 4대 담임목사의 부임으로 리더십이 교체된 이후 4-BASE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를 이룬 교회이다.

안락교회의 역사를 보면 1968년 개척하여 태동기를 지나 오영만 목사의 부임 후 성장하고 은퇴시점의 정체기를 맞이하기까지 3대에 거쳐 담임목회자가 부임하고 성장해온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의 사정과 환경을 보면 4대 목사인 윤동일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교회 사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배와 심방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동기부여가 없이 평신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평신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의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부임한 4대 윤동일 목사를 통해서 안락교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타 교회 가운데 전통적 교회에서 활성화를 이룬 교회들을 벤치마킹하였고, 안락교회만의 새로운 목회 철학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목회 철학 안에 향존직들을 참여시키는 위해 안락교회의 5대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을 만들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다. 설득의 과정을 가지고 평신도를 부르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향존직 제자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



불어 부교역자들과도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모임을 매주 가짐으로 활성화과정에 항존적, 부교역자들을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서 안락교회는 목회자의 비전을 교회와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그리고 올바르게 공유한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안락교회는 자체의 제자훈련 시스템은 만들었다. 4-BASE라는 일 년 과정의 제자훈련으로 교회안의 사역자와 소그룹 인도자인 순장을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실제적인 노력과 결과물로 제자훈련을 통해 양성된 순장을 통해 소그룹이 변화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활성화는 제일 먼저 평신도들이 교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과 소그룹 내에서의 삶의 나눔을 통해 평신도들의 신앙성숙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과 비교하여 적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도 1대 원로 목사와 후임 2대 본 연구자로 이어져 오면서 전통적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 하는 교회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존 구성원이었던 평신도들이 주어진 은사에 따라 맡겨진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구조에서 성도들의 리더십의 개발, 참여, 은사 발견, 인식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본질과 의미를 안락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광명교회 또한 이러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정, 교회, 직장, 세상 속에서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리더십을 더욱 훈련시킬 것이고 제자훈련을 넘어서 평신도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개발시켜 사역에 임하도록 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부족한 점의 보완과 과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특별히 안락교회가 자신의 목회 철학과 비전 선언문, 비전과 핵심가치를 모든 교인과 공유하여 3대에서 4대 목사로의 변화와 더불어 목회의 철학과 전략에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긍정적인 점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광명교회의 리더십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목회전략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안락교회는 평신도를 성장시키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훈련시스템을 잘 만들어 적용시켰지만, 아직 훈련된 평신도들이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없다. 이것은 훈련된 리더들이 개발된 은사와 사역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평신도 사역의 또 다른 정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훈련된 리더들이 훈련 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교회내 방황하는 또 다른 집단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전의 전통적 교회로서 가지고 있던 정채기의 모습보다 더 어려운 정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광명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의 강화를 위한 광명교회 내 제자훈련을 시행함과 더불어 은사에 따른 사역배치라는 팀사역 모델을 통하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과 배치, 훈련과 사역이라는 두 날개가 골고루 성장하는 팀 사역과 은사사역을 목회의 중점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제 4 장

###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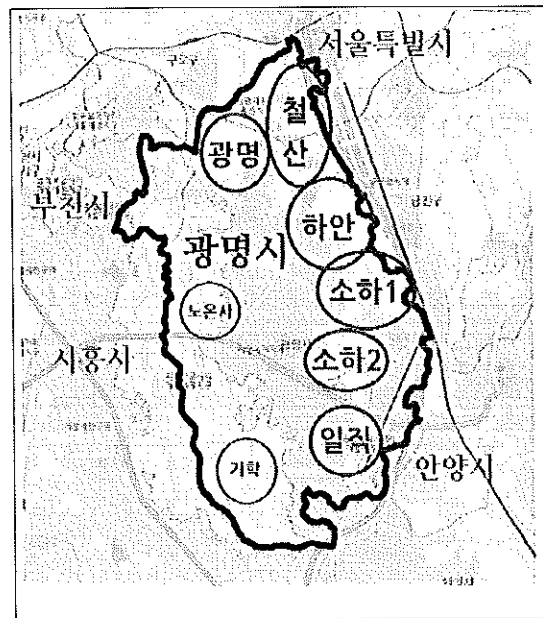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광명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함께 교회적 상황을 살펴본 후에,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광명교회 지역 상황 이해

본 절에서는 먼저 광명교회가 위치한 광명시 철산동은 물론 광명시의 전체적인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인 특성, 기독교 현황들을 살펴 볼 것이다.

##### 1. 광명 지역에 대한 이해

첫째, <그림 1>과 같이, 광명시의 지리적 환경을 볼 때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 서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서울특별시, 서쪽은 시흥시와 부천시, 남쪽은 안양시와 접하고 있는 위성도시로서 영등포와 구로구 금천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통합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축소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서울시 영등포와 구로구의 인접지역임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하게 되었고 인구이동과 유입이 많은 서울 근교 위성도시가 되었다.

<그림 1> 광명시 소생활권 지역<sup>55)</sup>

광명교회가 위치한 광명시 철산동과 하안동, 소하동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지구로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 아파트 지역이다. 서울 영등포와 구로 개봉동과 목동의 인접한 위치로 철산지구, 하안동, 소하지구의 전체가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전에는 구로공단지역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대규모 공단의 공장들이 중국, 동남아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가 형성되었다. 2005년 4월 철산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지리적인 면에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로서 최근 가장 활발한 도시로 개발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광명시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56)</sup>,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광명시의 전체 세대는 128,900세대이며 인구는 347,817명(남자 173,439명, 여자 176,378명)이다. 약 35만 명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서울 위성도시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도시이며 교육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학부모들이 말하는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지역으로 새로

55) <https://namu.wiki>

56) [www.gm.go.kr](http://www.gm.go.kr) (광명시청 홈페이지).

운 교육환경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있다.

인구 집중도를 볼 때, 이 지역은 현재 128,900세대 중에 단독주택은 114,417가구, 대단지 아파트는 65,944가구, 연립주택으로는 25,657가구가 살고 있다. 따라서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력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약 35만 여 명 중에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31,288명(11.8퍼센트), 중졸 34,366명(13.0퍼센트), 고졸 107,327명(40.3퍼센트), 대졸 91,866명(43.7퍼센트)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광명시의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18.7 퍼센트, 100~200만원 미만 17.5 퍼센트, 300~400만원 17.0 퍼센트, 400~500만원 14.0 퍼센트이다.<sup>57)</sup>

광명시의 결혼한 부부 67.4 퍼센트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36.6 퍼센트로 결혼한 각 가정에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서민층이 매우 두터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표 1>은 광명시의 연령별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 표에 따르면, 광명시의 남녀 인구 비율은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와 40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연령별 통계로 보면 광명의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광명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인 문화를 통한 전도의 접촉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카페, 도서관 등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화적 요소이지만 아직 광명 교회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어 고려해 볼 사항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문서, 스포츠, 영화, 음악,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전도 전략은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긍정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 2. 광명 지역 교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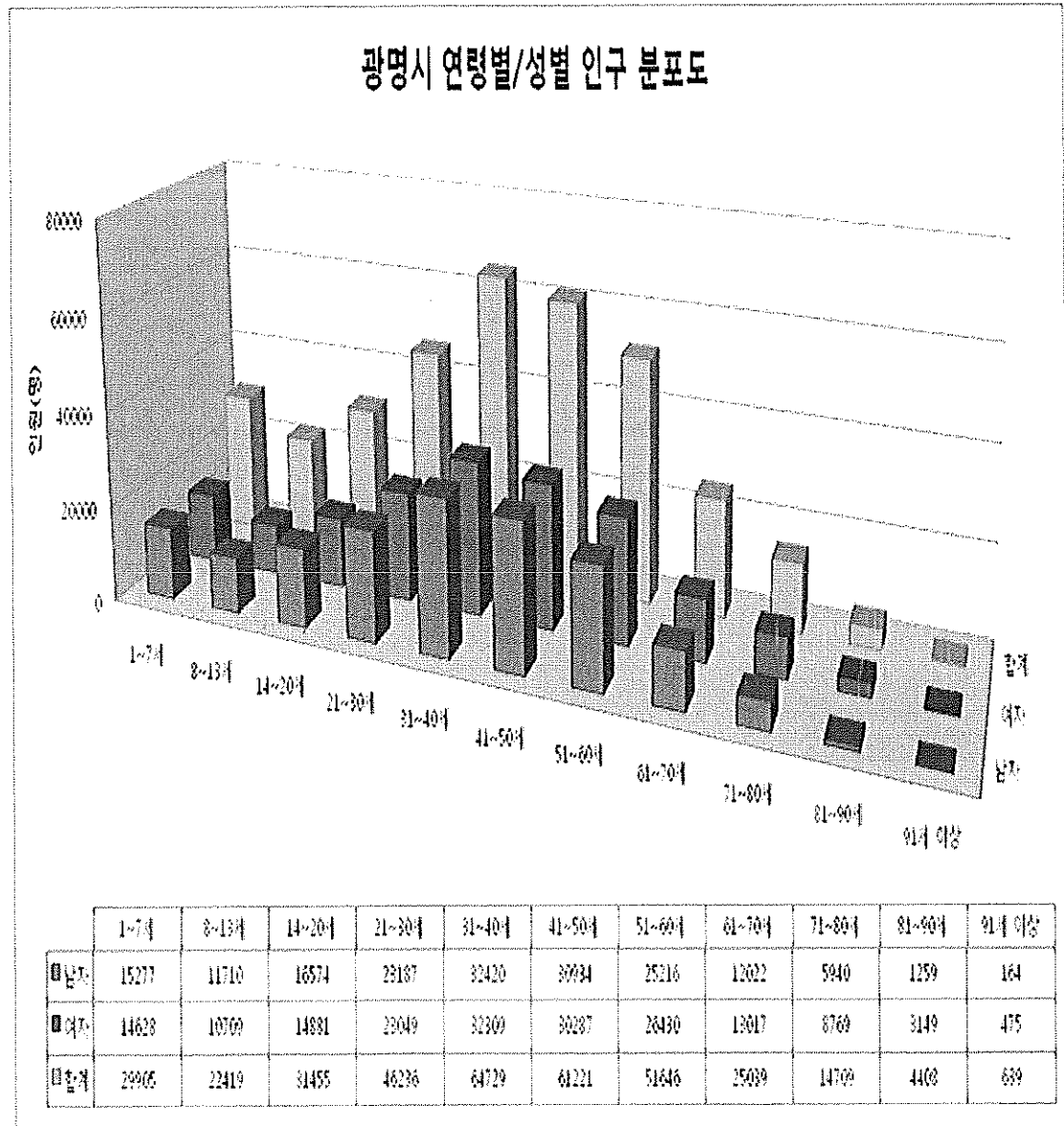
광명시 지역의 교회는 18개의 행정동에 속한 교회와 교인의 수는 339개 교회, 57,965명이다.<sup>58)</sup> 광명시 내 교회를 살펴보면, 본 교단 소속 교회는 총 8개 교회로, 철

57) [www.gm.go.kr](http://www.gm.go.kr) (광명시청 홈페이지). 사회조사보고서

58) 광명시청 관광과 서면자료를 토대로 작성(2015년 2월13일 기준, 광명지역 개신교 단체 현황)

산동에 위치한 광명교회를 비롯하여 인근 광명동과 하안동에 위치한 남광교회, 한나라교회, 미래로교회, 행복한교회, 흰돌교회, 조은교회, 그리고 기도처로 천돌교회가 있다.

<표 1> 광명시 연령/성별 인구 분포도<sup>59)</sup>



타 교단 교회로서는 감리교단이 21곳, 성결교단이 18곳, 성공회가 1곳, 순복음 교

59) www.gm.go.kr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

단이 24곳, 장로교단이 233곳, 침례교단이 17곳, 기타 25곳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광명시 소재 교회에 교인수 합계는 57,965명 (2015년 2월 13일 현재)이며 이 가운데 가장 교인수가 많은 교단은 장로교단이었고 가장 교인수가 적은 교단은 성공회 교단이다.

광명시 전체 인구가 347,817명 (2015년 2월 현재) 인 것을 감안할 때 광명시 소재 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는 16.6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 16.6 퍼센트는 광명시 복음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지만 지역교회가 아닌 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6.6 퍼센트 범주에 있는 사람들 역시 광명시 거주민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는 2015년 광명시 종교 인구 현황을 표로 만든 것이다.

<표 2> 광명시 종교 인구 현황 (2015년 현재)

총인구 317,452명 / 종교인구 165,914명							
종교 없음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미상	원불교	유교
152,272명	78,361명	49,247명	35,433명	1,667명	1,266명	801명	405명
47.6	24.5	15.4	11	0.05	0.03	0.02	0.01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본 연구자는 <표 2>의 광명시 종교인구 현황에서 보듯이, 광명시의 교회 상황을 연구하면서 광명시 기독교 복음화가 2015년 현재, 전체 인구 수 가운데 24.5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 수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퍼센트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자가 주목한 점은 무종교인이거나 미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47.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광명교회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준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고립성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광명시 복음화는 반드시 확장되리라 기대 한다.

## 제 2 절 광명교회의 현황

앞 절에서는 광명교회가 속해 있는 광명시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적 상황들과 교회적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평신도 사역을 계발함에 앞서 광명교회의 역사와 목회철학, 사역의 비전과 함께 평신도 사역 계발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광명교회의 역사<sup>60)</sup>

광명교회는 1982년 3월 28일에 제1대 목사이면서 현 원로목사인 김만중 목사에 의해 영등포에 양평동에 위치한 양평동교회의 후원으로 광명시 철산동 주공 3단지 복합상가 B4-205에 63평을 매입하여 개척하였다.

광명교회의 제 1성장기는 1982년 3월부터 1987년 말까지로 제1성전에서 부흥을 맞던 시기를 말한다. 교회를 창립하고 만 5년 동안 광명교회는 교인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성장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1982년 9월에 서리집사 21명을 임명해 제직회를 구성하고, 1984년 7월과 9월에는 기존 성전에 붙여진 상사를 매입해 예배 장소를 넓혔다. 그러면서 철산동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박차를 가했다. 그 후 성전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6년 6월부터 성전건축의 비전을 갖고 건축헌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88년 7월 17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철산동 5543번지 건물을 매입해 꿈에 그리던 단독 건물로 된 제2성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제 2성전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1여년 만에 강제 경매 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광명교회는 제 2의 성장기를 맞았다.

1990년 7월부터 미자립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러시아 오세친 공화국 뿌리체레치니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전교인이 일심하여 도왔고 2003년에는 광명지역 공동체 교회들과 함께 결식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랑의 밥퍼’를 시작했다. 1994년에는 지역 재건축에 따른 제 3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건축 헌금작정을 다시 시작했다.

60) 김만중, *광명교회 30년사* (서울: 신우 디엔피, 2012.)



제 3성전 건축은 지역 재건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2005년 4월 재건축조합과 보상협약으로 토지 500평을 확보하고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08년 6월 1일 입당예배를 드림으로 제 3의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부터는 지역사회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사랑부 예배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1대 담임목사의 은퇴를 준비하며 본 교회에 시무하던 박진규, 황용훈 목사의 개척을 후원하여 각각 1억 2천 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초기 2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 이 후 2대 목사 청빙 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연구자가 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 2. 광명교회의 현황

본 연구자는 1대 담임목사인 김만중 원로목사를 이어 2012년 9월 동사무사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광명교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과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 선교와 사역, 교제와 나눔의 영역들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목회구조로 수직적인 사역조직 모델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 제 3 교회당 건축 이후 교회는 급성장하였지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소그룹의 부재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을 이끌어 갈 훈련된 평신도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훈련된 리더의 부족은 구역을 비롯한 소그룹 공동체의 정체 및 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본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셋째, 교회 안에는 교회당건축 이전의 성도와 건축 이후 등록한 성도들 간의 이질감도 존재하고 있어 교인들 간의 통합이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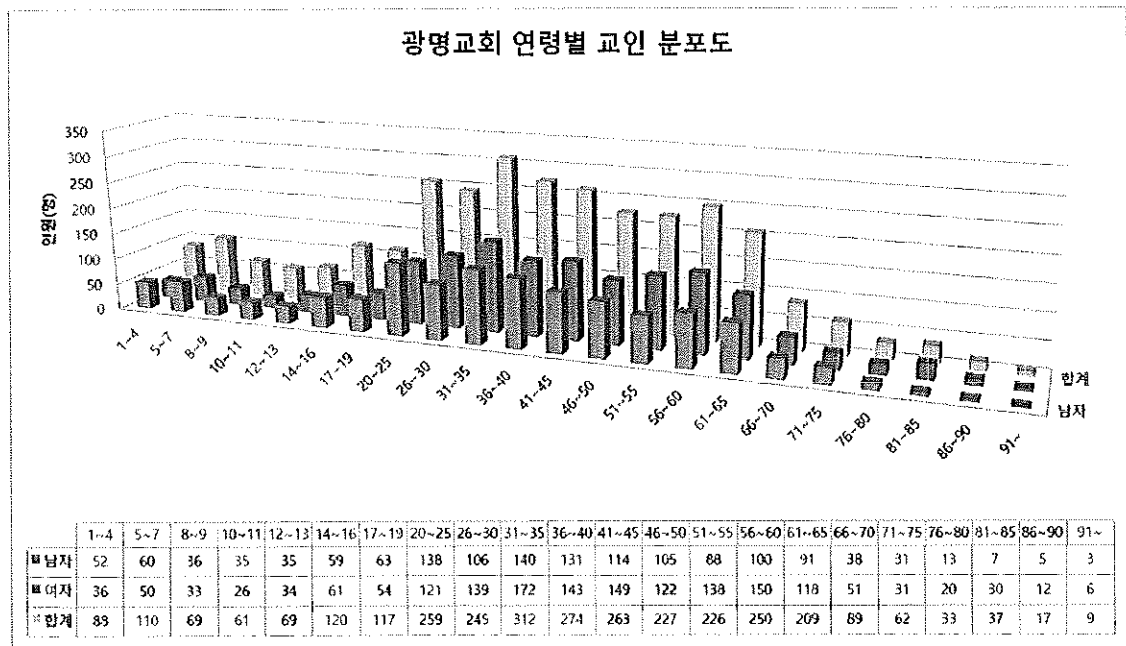
넷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은사들을 통해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기타 몇몇 소그룹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도록 돕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세워주는 사역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였다.

다섯째, 다양하고 많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다양한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전체 교회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적분자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1대 목사의 은퇴를 기점으로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1대 담임목사의 은퇴와 제 2대 담임목사로 새롭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세 술은 세 부대’에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지나온 전통 위에 새롭게 모든 교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큰 그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끝으로, 광명교회 현재 인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현재 광명교회 제직인원은 장년 2,415명, 다음세대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731명 총 3,146명의 성도들로 세대별 가정 수는 1,159 가정이며 연령대는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광명교회 연령별 교인 분포도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성도는 2012년에는 장년 평균 952명, 다음세대 평균 342명, 2013년에는 장년 평균 1,042명, 다음세대 평균 372명, 2014년 장년 평균 1,156명, 다음세대 평균 379명, 2015년 현재 장년 평균 1,200여 명, 다음세대 약 400여명 출석하고 있다.

현재 광명교회는 교역자의 인적사항은 원로목사 1명, 담임목사 1명, 부목사 6명, 전도사 7명, 은퇴전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로회는 은퇴 장로 2명, 시무장로 12명, 안수집사는 은퇴안수집사 1명, 안수집사 33명, 협동안수집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사는 은퇴권사 8명, 시무권사 61명, 협동권사 7명, 명예권사 26명, 남자 서리

집사 171명, 여자 서리집사 324명, 명예집사 41명 그리고 목장리더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가족의 등록현황을 볼 때, 2013년 327명, 2014년 226명, 2015년 7월 첫 주일까지 154명이 등록하여 매주 마다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다.

<표 3>의 광명교회 연령별 교인 분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명교회 성도의 연령층은 다음세대를 비록 모든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30대 중반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40대 초반과 중반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중반과 30대와 40대 중반과 50대중반 그리고 50대와 60대 60대 중반 순으로 교인은 분포되어 있어 성장의 동력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다.

### 3. 광명교회 목회철학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목회 철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목회 철학이란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 있는 설계도와 같기 때문이다. 설계도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또 그 설계도의 내용대로 지어야 실제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목회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자의 목회 이념과 목회 철학은 광명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하기 전, 부교역자로 섬기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의 목양일념을 공감하며 전수 받은 정신과 철학이며 본 교회에 청빙을 위해 제출된 내용이기도 하다.

#### 가. 목회 이념과 비전

첫째는,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양육이다.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의 목회의 첫 번째 이념은 복음주의 신앙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적 말씀 생활의 실천이다.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교회 연합정신이다. 교회는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의 연합에 힘을 써야 한다. 교회의 복음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폐쇄

적으로 편 가르거나 분열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넷째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구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목회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목회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는다. 교회는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목회철학이 세워졌다.

#### 나. 목회철학

위와 같은 목회 이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목회철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목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대다수 교회 성장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확고한 신념을 목회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철저한 기도의 목회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목회자로 먼저, 나 자신이 바로 서게 되면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사람이다.

둘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한 목회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이유이며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듯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준비된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이를 통해 침체된 심령이 새

로워지며, 가정이나 목장(cell) 등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 (house church)가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셋째, 화평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이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화평이 무너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진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경직 목사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자에게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기만 하면 자연히 부흥한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화목케 하는 직책 (고후 5:18)을 잘 감당하는 목사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면 사랑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롬 13:10), 최고의 법 (약 2:8)이다. 교회의 모든 갈등요소를 미리 사전에 사랑의 법으로 예방하는 일에도 관심과 힘을 쏟을 것이다.

넷째,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하는 목회이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동역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북 치고 장구 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제자화 하고 지도력을 계발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목회 영역이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더불어 성장함으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목회이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과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현 시대는 가정에서 사랑과 바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 이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세속화시키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부패한 오늘날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의 윤리의식까지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가치관 속에 절대적 기독교 진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부모와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바른 윤리의식과 바른 국가관을 세워 이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으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 시간과 재정, 장소 등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本)을 보여야 한다. 예배드리는 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본, 헌신하고 감사하는 본, 봉사하는 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본을 보여야 한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여야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목회이다.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은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워 주심으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임을 깨닫고 가정 사역을 위해 힘쓸 것이다.

#### 4. 평신도 사역의 장애요소

앞에서는 광명교회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광명 지역에 대한 교회들과 종교적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광명교회의 역사와 인적 상황들, 목회철학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 본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교회 안에 저항 및 장애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다. 교회가 개척된 후 30년 동안 한 사람의 목회자로부터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 사역계발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다. 지금까지 30년간 잘해왔다는 만족감과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익숙해 있는 안정된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저항을 가져 올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한 인식은 본 연구자에게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게 하였고, 평신도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일, 평신도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였다.

둘째는 지역의 특성상 수평이동이 높은 것이 문제였다. 광명교회는 지리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상 3년마다 혹은 2년마다 전세 계약 만기로 인해 이사 등 이동이 매우 빈번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교인들

의 수평이동 비율이 매우 높다. 동시에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로 인한 이동도 매우 빈번하다. 또한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내 분쟁이나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를 옮기게 되었거나 교인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는 수평이동 교인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교회 안에 잘 정착되면 다행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잠재적 실종 교인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 특성상 인구의 유입의 유동성 및 교인들의 수평이동 현상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득이하게 평신도 사역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수평이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중·장기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떠나고 싶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셋째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다.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직장생활 등 개인의 삶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회사역에 대한 관심부족과 참여부족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 가장 바쁜 사람들 가운데 20대 40대를 들 수 있다. 광명교회에도 젊은 연령대의 새 가족이 많이 등록하고 있다. 전체 등록 교인 가운데 20-40대가 남성이 515명, 여성이 575명으로 전체 3,146명 중 1,090명으로 35퍼센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 40대 연령층은 장년과 청년들 사이에 낀 세대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연령층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 신앙교육 및 훈련의 사각지역에 있게 되고 신앙중심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으로 힘들고 피곤한 경우가 많다. 젊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직장생활 등 개인의 삶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회사역에 대한 관심부족과 참여부족의 장애요인이다. 그러하기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대를 비롯해서 40대까지 연령층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구체적인 사역의 방안들이 필요함을 느낀다.

위와 같이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대안들이 필요했다. 평신도 사역개발은 전통적인 교회 시스템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다소 낯선 것이지만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그냥 묻어 둘 수는 없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에는 저항과 장애물이 있다.<sup>61)</sup>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의 역

61)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서울: 도서출판NCD, 2003), 125.

활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저항과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열쇠가 된다. 그러하기에 충분히 저항과 장애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제 3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광명교회 지역 상황과 교회 현황 등을 바탕으로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계발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 볼 것이다. 방안이란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첫 번째 방안은 비전을 나누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팀을 만드는 단계이고 마지막은 은사를 확인하게 하고 사역팀에 배치하는 단계이다.

#### 1. 비전나누기

광명교회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다. 여기에 근거한 목회의 핵심가치는 생명을 살리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 가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계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비전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첫째, 당회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참여 그리고 역할 나누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비전회의를 통해 당회원들과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나누며 당회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동역, 그리고 당회원 자신의 은사를 발견시켜 은사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설득하였다.

둘째, 전교인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공감대 형성하기이다. 이 단계는 총 6차례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전교인 은사확인 및 팀 나누기, 팀장 훈련하기이다. 이 단계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리더훈련으로서 총 4단계의 양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 가. 당회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참여 그리고 역할 나누기

광명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당회원들은 새로운 담임목사를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 교회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내려 온 전통적인 교회조직의 한계에서 벗어나 요즘 시대의 부흥하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어가길 기대했다. 그런 바람과 더불어 본 연구자 역시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패러다임도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판단과 소신으로 당회원들과 함께 비전회의를 진행하였다.

비전나누기를 위한 당회원 교육의 주제는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조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였다. 교회의 조직은 목회철학과 전략의 반영이기 때문에 조직을 재구성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해 온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흔쾌히 당회원들의 동의로 광명교회 사역 조직을 팀사역 조직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위원회 조직의 장점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확실적인 계통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관료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를 갖는 점, 힘에 의한 동기유발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후 당회원들과의 본격적인 목회 철학의 공유는 11월 첫 주일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제자훈련은 주일 오후 예배 후 4시부터 진행되었고 모임이 끝나면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아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 초임 담임목사가 당회원들과 소통하며 비전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나. 전교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감대 형성하기

2013년과 2014년 두 해 동안 광명교회 표어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정하였다. 이 표어를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게 강조하고 더불어 광명교회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13년 첫 주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6-47절의 본문으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두

번째 주일에는 에베소서 4장 1-12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한 모든 성도는 서로 유기체적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때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몸의 지체가 그 역할이 있듯이 주어진 은사에 맞는 사역으로 헌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더욱 세워가기를 바라는 비전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셋째 주일에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 넷째 주일에는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주일에는 “선교하는 교회”, 여섯째 주일에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설교하였다.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 설교에서 선포한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동기부여 과정으로 적용하였다.

첫째,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를 강조하였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뿐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가정예배 및 목장 공동체와 소그룹의 예배를 강조하였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넷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새로운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몸 된 교회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의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것으로 교회의 모든 팀과 부서에 들어가서 일인 일 사역으로 봉사할 것을 동기화하였다. 두 주간에 행한 설교의 주제와 내용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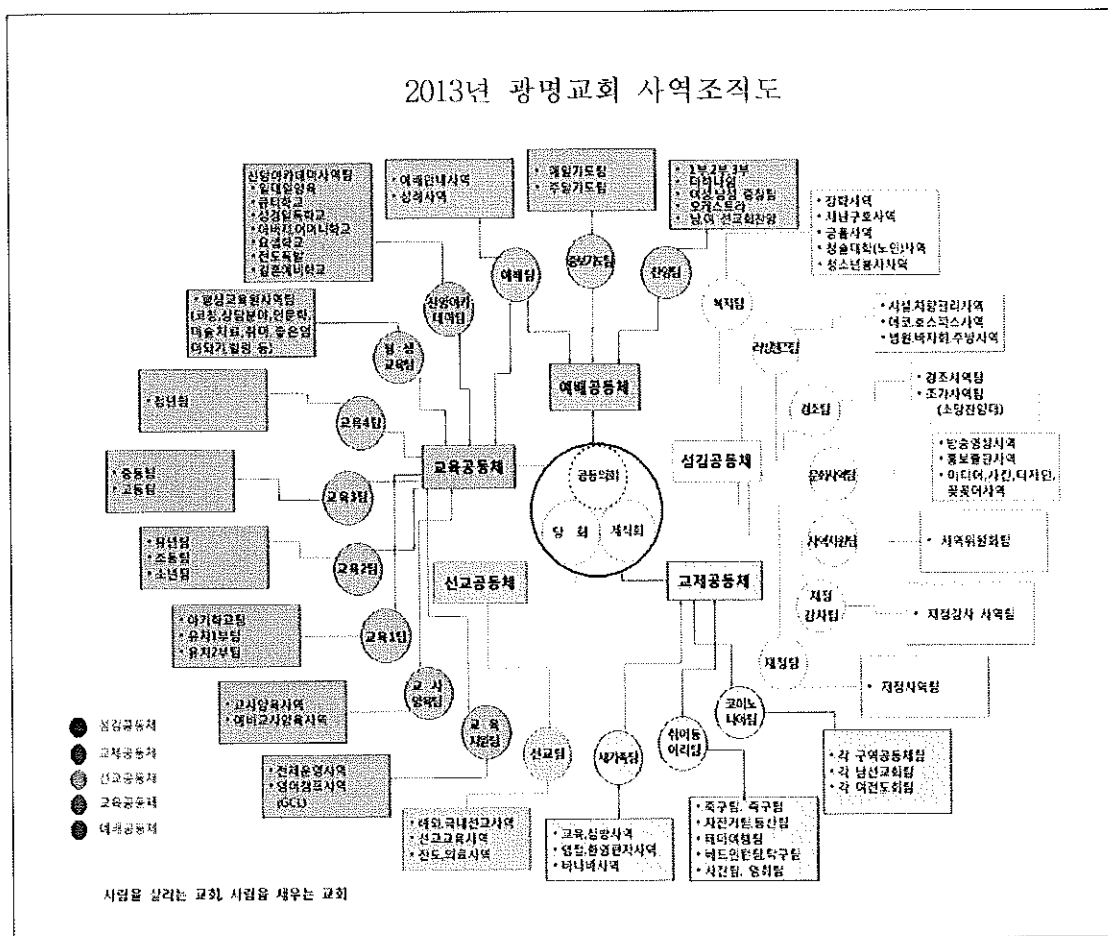
## 2. 팀 만들기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교회의 조직은 목회철학과 전략의 반영이기 때문에 조직을 재구성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위원회



부제 가운데 팀을 만들어 가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 지구촌교회 평신도 사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매뉴얼 작업은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고 사역을 진행해서 가면서 새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제구성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규약들은 팀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초기 사역 매뉴얼에 기재된 사항들은 사역팀의 사명, 사역전략, 사역지침 등이다.

<그림 2> 2013년 광명교회 사역조직 모델<sup>62)</sup>



### 3. 은사 확인 및 배치

평신도 사역의 주제로써 평신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발해야

62) 2013년 사역조직 모델은 가장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다.

한다. 은사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다섯 개 제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체크해보도록 하였는데, 그 첫째는 “나는 이 사역을 하면 즐거운가?”, 둘째, “나는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넷째, “남들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다섯째, “실제로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있는가?”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인도했다.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사진단 질문지를 통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열정을 파악하고 개성을 살려 사역에 적용하며 각각의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나간다면 팀사역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가. 은사 확인 및 배치

광명교회 은사확인 및 배치 사역은 사역지원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역지원팀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사사역훈련학교(준비중)와 은사사역박람회(매해 10월에 진행하고 있음)를 중점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다.

은사배치를 위한 사역지원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발견과정이다. 1일 또는 2일 간의 세미나를 통하거나 1단계 양육 훈련인 <행복한 만남> 5주차에서 진단한 은사진단 검사지를 통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관심사, 성격유형, 은사)를 발견,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석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역처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 2단계 상담과정이다. 은사 확인 단계를 거친 성도들을 일대일의 개인 접촉을 통한 상담을 통하여 각 성도의 프로필에 따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내리신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적합한 사역처를 찾아가도록 해 준다. 상담시 주요 질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역 경험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② 열정 ③ 은사 ④ 성격유형 ⑤ 영적 성숙도 ⑥ 주간 가용 시간 ⑦ 가능한 사역 ⑧ 사역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유 등이다. 상담을 마치면 상담 대상자 개인별로 상담결과표, 교적부, 개인프로필을 철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셋째, 3단계 배치과정이다. 은사중심사역의 목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모든 성도는 청지기다.”라는 이론을 실행하게 한다. 배치과정에서는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컴퓨터에 입력하고 정리한다. 차후의 은사배치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인사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은사 배치 세미나를 이수하고 사역 배치를 받았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배치된 사역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재배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가능한 제 2, 제 3 순위의 사역에 배치토록 하고 이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는 부득이 은사배치 세미나를 새롭게 이수한 후에 재 상담을 거쳐서 재배치하도록 한다.

#### 나. 은사배치를 위한 은사진단 도구

은사배치를 위한 은사진단 도구는 미국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 은사진단을 통한 결과가 나오면 은사의 내용에 관련하여 배치 가능한 사역의 분야를 소개하고 자원 신청 또는 선발을 통한 권유를 하게 된다. 은사내용과 관련한 사역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형 다스림 (행정관리)의 은사이다. 다스림의 은사는 무엇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며,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관련 사역의 분야는 사역지원팀, 교육 사역팀, 재정 사역팀, 세 가족행정 사역팀, 교육지원팀, 신앙아카데미, 바나바사역 등이 있다.

둘째, B형 재주 (기술, 기능)의 은사이다. 재주의 은사는 사용될 물건들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의 분야는 방송 사역팀, 미디어팀, 홍보출판 사역팀, 시설관리 사역팀, 차량관리 사역팀, 교육 사역팀, 찬양팀, 청솔대학 사역팀, 취미 동아리팀 등이 있다.

셋째, C형 에능 (창의적 의사 전달)의 은사이다. 에능의 은사는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의 분야는 교육 1, 2, 3, 4팀 교사, 새 가족 사역팀, 찬양팀, 방송 영상팀, 디자인팀, 홍보출판팀 등이 있다.

넷째, D형 권위(encouragement)의 은사이다. 권위의 은사는 신앙을 버렸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며 위로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련사역 분야는 중보기도 사역, 신앙아카데미 사역, Mother Wise 사역, 아버지학교 사역, 예배안내 사역, 바나바 사역 등이다.

다섯째, E형 전도의 은사이다. 전도의 은사는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며 제자화 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사역 분야는 전도사역팀, 선교팀, 긍휼팀, 새 가족팀, 바나바사역 등이 있다.

여섯째, F형 돕는 은사이다.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털어주거나, 지원하거나, 채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 분야는 경조 사역팀, 예배 사역팀, 심방 사역팀, 긍휼 사역팀, 청솔대학팀, 차량관리 사역팀, 주방 사역팀, 새 가족팀, 신앙 아카데미팀, 바나바사역, 교회 청소사역 등이 있다.

일곱째, G형 대접하는 은사이다. 대접하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친교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며 보살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써 관련 사역 분야는 새 가족 영접 사역팀, 주방 사역팀, 청솔대학 사역팀, 바나바 사역팀 등이 있다.

여덟째, H형 중보기도의 은사이다. 중보기도의 은사는 빈번하고도 뚜렷한 기도의 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거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성한 능력으로 관련 사역 분야는 중보 기도팀이 있다.

아홉 번째, I형 지식의 은사이다. 지식의 의사는 성경적 통찰을 통해 교회에 진리를 전하는 신성한 능력으로 관련 사역 분야는 교육 사역팀 교사, 새 가족 교육 사역팀, 방송영상 사역팀, 홍보출판 사역팀, 교육지원팀 등이 있다.

열 번째, J형 지도력의 은사이다. 지도력의 은사는 하나님이 목적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지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 분야는 교육지원팀, 아기학교 사역 (준비중), 청소년봉사 사역팀

(준비중), 신앙아카데미, Mother Wise 사역팀, 아버지학교 사역팀 등이 있다.

열한 번째, K형 긍휼의 은사이다. 긍휼의 은사는 동정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고통 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기쁘게 돕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분야는 긍휼 사역팀, 청솔대학 사역팀, 경조 사역팀, 결혼예비학교 사역팀 등이 있다.

열두 번째, L형 가르침의 은사이다. 가르침의 은사는 듣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더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관련 사역 분야는 교육 사역팀 교사, 선교 사역팀, 새 가족교육 사역팀, 아기학교 사역팀, Mother Wise 사역팀 등이 있다.



## 제 5 장

###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의 실제

본 장에서는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진행된 평신도 사역을 위한 사역자 양육훈련의 실제와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조직 및 다섯 개 공동체의 구체적인 평신도 사역의 사역팀의 사역 상황들을 살펴보며, 평신도사역 전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 사역 후 교회의 변화된 상황들을 비교하여 평신도 사역개발이 가져다 준 교회 활성화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 제 1 절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양육훈련

본 절에서는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평신도 리더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양육의 과정을 통해 훈련되는지 양육 프로그램을 살펴 볼 것이다.

평신도 리더를 양육을 담당하는 사역팀은 양육 사역팀이다. 광명교회의 비전인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팀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전도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설함으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가치를 둔다. 양육 사역팀의 사명은 양육 과정을 통해 변화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정과 직장,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다. 양육단계는 다음 몇 가지고 나눈다.

##### 1. 1단계 행복한 만남

<표 5>는 1단계 양육사역 모델 표로 만든 것이다.

<표 5> 1단계 양육사역 모델<sup>63)</sup>

일정	교육 내용	과외 프로그램	양육방법
1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환영식/담임목사 면담	강의식 양육과 일대일 멘토 양육을 병행
2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나바 연결	
3주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나바 편지보내기	
4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목장리더 연결	
5주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회장 연결	
6주	은사확인검사	교역자 심방	
7주		목장에배참석	
8주		수료식 및 환영식	

광명교회 제 1단계 훈련 교재인 **행복한 만남**의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만남 1과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아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1과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과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으로 나누어 제시 해 주었다.

두 번째 만남 2과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이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함을 이야기 하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살펴보도록 구성하였다.

63) 광명교회 편, **행복한 만남** (서울: 광명교회 홍보출판팀, 2013).

세 번째 만남 3과의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성령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16-17절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 번째 만남 4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하셨다. 신앙의 사람은 육체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며, 그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4과에서는 성경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교회의 기능 중 하나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다섯 번째 만남 5과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마지막 5과를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세 가족이 정착하게 될 광명교회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 2. 2단계 영적 성장의 길, 일대일 제자양육

### 가. 영적 성장의 길<sup>64)</sup>

영적성장의 길은 신앙훈련 2단계 훈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과 성숙한 삶을 통해 더 깊고 넓은 영적 성장의 훈련을 담고 있다. 교제는 영적성장의 길(국제제자훈련원)이며, 내용은 3개 영역으로 영적성장의 터다지기(3주), 믿음의 내용(5주), 성숙한 삶(5주)로 성경, 성경연구와 묵상, 기도,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교회, 구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생의 목적, 영적전투와 고난, 성령 충만한 삶의 주제를 담고 있다. <표 6>은 2단계 양육사역의 모델을 표로 담고 있다.

64) 국제제자훈련원, 영적 성장의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lt;표 6&gt; 2단계 양육사역 모델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1주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주차	성경 연구와 묵상
	3주차	영혼의 호흡, 기도
믿음의 내용	4주차	하나님은 누구신가?
	5주차	예수님은 누구신가?
	6주차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7주차	교회란 무엇인가?
	8주차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삶	9주차	하나님 사랑
	10주차	이웃 사랑
	11주차	인생의 목적
	12주차	영적 전투와 고난
	13주차	성령 충만

#### 나. 일대일 제자양육<sup>65)</sup>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팀은 일대일을 원하는 성도에게 일대일 제자 양육자를 연결해 줌으로 정해진 교재와 방법으로 양육하는 기초양육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통로와 사역훈련의 장으로 운영되는 사역팀이다. 양육교재는 두란노 출판사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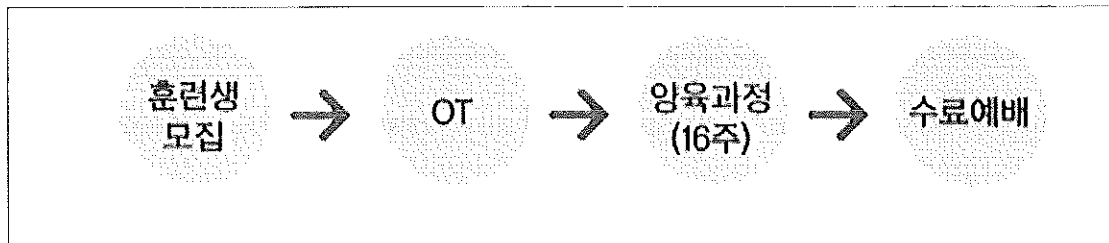
양육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개강 5주전 광고를 통해 훈련생을 5주간 모집하고 개강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16주의 양육과정을 진행하고 17주차에 수료예배를 드린다.

양육 16주 과정은 ① 안녕하세요(1주), ② 만남: 예수 그리스도(4주), ③ 큐티(1주), ④ 성장: 양육 성경공부(10주)로 진행되며 각과의 주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65) 두란노 편,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10).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큐티의 이론과 실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등이다. 본 과정의 신청자격은 본 교회의 새 가족 성경공부인 **행복한 만남** 5주 과정을 수료한 광명교회 성도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는 수료자에게는 제자훈련 자격이 주어진다.

<그림 3>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



### 3. 3단계 제자훈련 I-제자의 삶<sup>66)</sup>

남, 여성 지도자 제자훈련인 제자의 삶(26주)의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26주간의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자훈련의 내용은 4가지 영역으로 제자훈련의 기초, 구원의 진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목장의 원리와 실제이며 각과의 주제는 간증이 있는 삶, 경건의 시간,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 기도로 응답받는 삶, 소그룹은 무엇인가?

<표 7>은 3단계 양육사역 모델을 표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단, 순종의 삶, 봉사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 영적 성장, 영적 전투,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그리스도의 주재권, 청지기직, 리더십, 목장관리와 목장리더의 역할, 목장 갈등 대처법, 목장 상담의 실제 등이다.

66) 광명교회 편, **제자의 삶** (서울: 광명교회 홍보출판팀, 2013).

&lt;표 7&gt; 3단계 양육사역 모델

<제자의 삶>		
제자훈련의 기초	1주차	오리엔테이션
	2주차	간증이 있는 삶
	3주차	경건의 시간
	4주차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
	5주차	기도로 응답 받는 삶
	6주차	소그룹은 무엇인가?
구원의 진리	7주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주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9주차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주차	교회란 무엇인가?
	11주차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12주차	다른 복음-이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13주차	순종의 삶
	14주차	봉사의 삶
	15주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16주차	그리스도인의 가정
	17주차	영적 성장
	18주차	영적 전투
	19주차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20주차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21주차	청지기직
목장의 원리와 실제	22주차	리더십
	23주차	목장관리와 목장리더의 역할
	24주차	목장 갈등 대처법
	25주차	목장 상담의 실제
	26주차	국내 성지 순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단, 순종의 삶, 봉사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 영적 성장, 영적 전투,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그리스도의 주재권, 청지기직, 리더십, 목장관리와 목장리더의 역할, 목장 갈등 대처법, 목장 상담의 실제 등이다.

#### 4. 4단계 제자훈련 II-예수님의 사람<sup>67)</sup>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14주 과정)은 ‘제자의 삶’ 과정 다음 단계 과정으로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사용하며 소그룹 정원을 11명으로 제한하여 담임목사가 지도하는 그룹이다.

<표 8> 4단계 양육사역 모델

1주차	오리엔테이션
2주차	십자가의 능력
3주차	내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4주차	회개의 기쁨,
5주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6주차	성령 충만한 사람,
7주차	주님의 음성듣기,
8주차	기도로 사는 사람,
9주차	믿음으로 사는 사람
10주차	소망으로 사는 사람,
11주차	사랑으로 사는 사람
12주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13주차	전도자의 사명
14주차	국내성지순례

연 2회 진행된다. 훈련의 내용은 훈련기간 동안 영성일기 쓰기, 새벽기도 참석하

67)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 (서울: 넥서스 CROSS, 2012).

기, 매일 성경읽기, 성경암송, 중보기도, 묵상 나눔이며 매주 1회 모임을 통해 2시간 동안 교재복습과 묵상 나눔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훈련의 수료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양육자로 훈련받고 담임목사의 목회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다.

<예수님의 사람> 각 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과 십자가의 능력, 2과 내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3과 회개의 기쁨, 4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5과 성령 충만한 사람, 6과 주님의 음성듣기, 7과 기도로 사는 사람, 8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9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 10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 11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12과 전도자의 사명 등이다.

## 제 2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조직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평신도 사역 조직 모델을 살펴보고 다섯 개의 공동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 사역 모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조직은 총 30여 개의 팀 사역으로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섬김공동체, 교제공동체, 선교공동체 등 다섯 개의 공동체 안에 구성되어 있다.

세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 공동체 안에는 예배팀, 중보기도팀, 목양팀, 찬양팀 등 4개의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 예배준비 사역팀, 예배안내 사역팀, 성례사역팀, 헌금위원 사역팀, 꽃꽂이 사역팀, 주일기도 사역팀, 주중기도 사역팀, 양육 사역팀, 일대일제자양육 사역팀,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팀, 여호수아 찬양팀, 오케스트라와 그 외 남성, 여성 중창단, 남녀 선교회 찬양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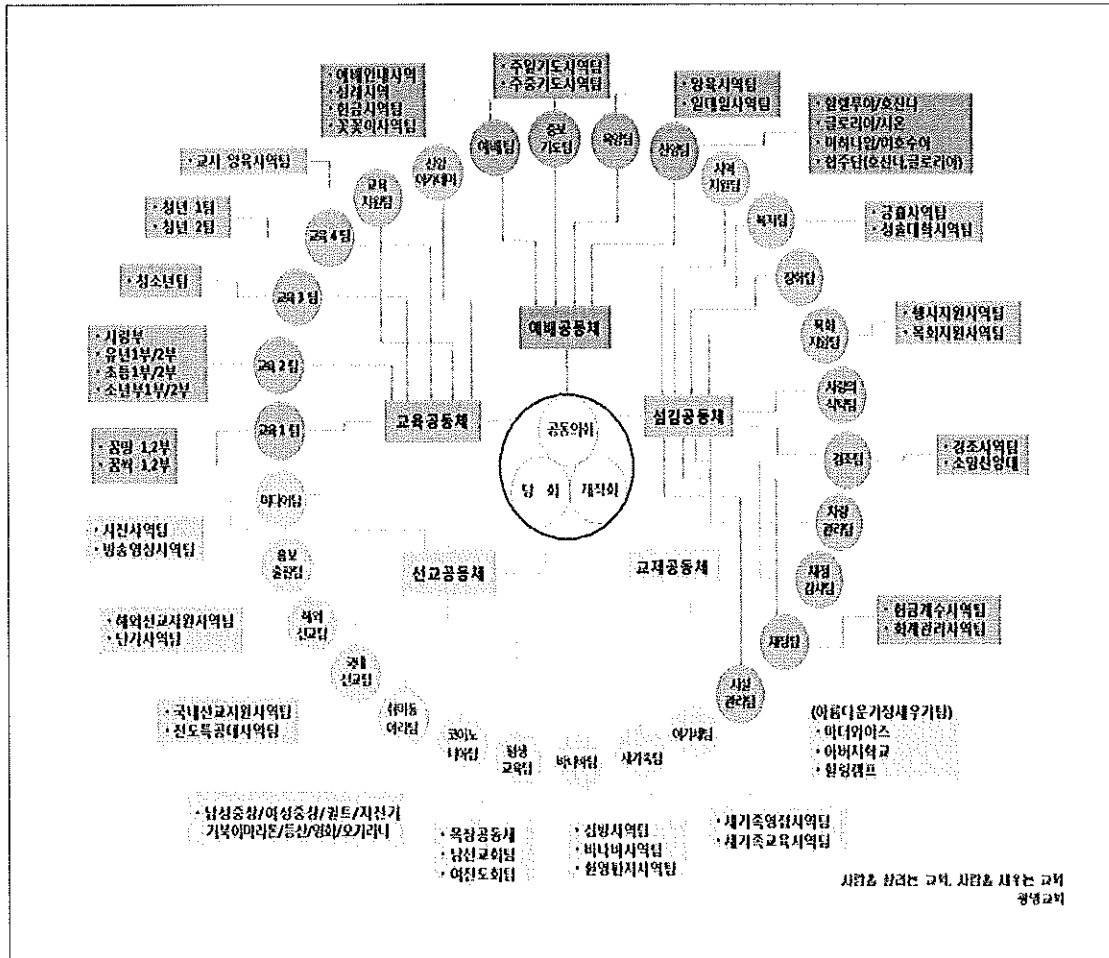
둘째, 섬김 공동체 안에는 사역지원팀, 복지팀, 장학팀, 목회지원팀, 사랑의 식탁팀, 경조팀, 차량관리팀, 재정 감사팀, 재정팀, 시설관리팀 등의 10개의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 공홀 사역팀, 청솔대학 사역팀, 행사지원 사역팀, 목회지원 사역팀, 소망찬양대, 헌금계수 사역팀, 회계관리 사역팀 등의 세부 사역팀이 소속되어 있다.

셋째, 교제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팀, 세 가족팀, 바나바팀, 평생교육팀, 코이노니아팀, 취미 동아리팀 등 6개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 Mother Wise, 아



버지학교, 가족 힐링 캠프, 세 가족 영접 사역팀, 세 가족 교육 사역팀, 심방 사역팀, 바나바 사역팀, 환영편지 사역팀, 목장공동체, 남선교회팀, 여전도회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그림 4> 광명교회 사역모델(2015년 현재 모델)



넷째, 선교공동체 안에서는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홍보출판팀, 미디어팀 등의 4개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는 국내선교지원 사역팀, 전도특공대 사역팀, 해외선교지원 사역팀, 단기 선교팀, 사진 사역팀, 방송영상 사역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에는 교육 1, 2, 3, 4팀과 교육지원팀, 신앙 아카데미팀이 있으며 소속 사역팀으로는 영유아부에 해당하는 꿈땅 1부, 2부, 유치부에 해당하는 꿈썩 1부, 2부, 장애우를 위한 사랑부, 유년 1부, 2부, 초등1부, 2부, 소년1부, 2부, 청소년

1팀, 2팀, 청년1팀, 청년2팀, 교사 양육 사역팀 등이 소속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3 절 공동체별 평신도 사역 조직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공동체별 평신도 사역 조직을 예배, 교육, 섬김, 선교, 교제 공동체의 다섯 공동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예배공동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예배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기도이며, 셋째는 찬송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때,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비극적인 사실이다.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이다.<sup>68)</sup> 그런 의미에서 광명교회 예배 공동체의 사역개발을 위해 발견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역 모델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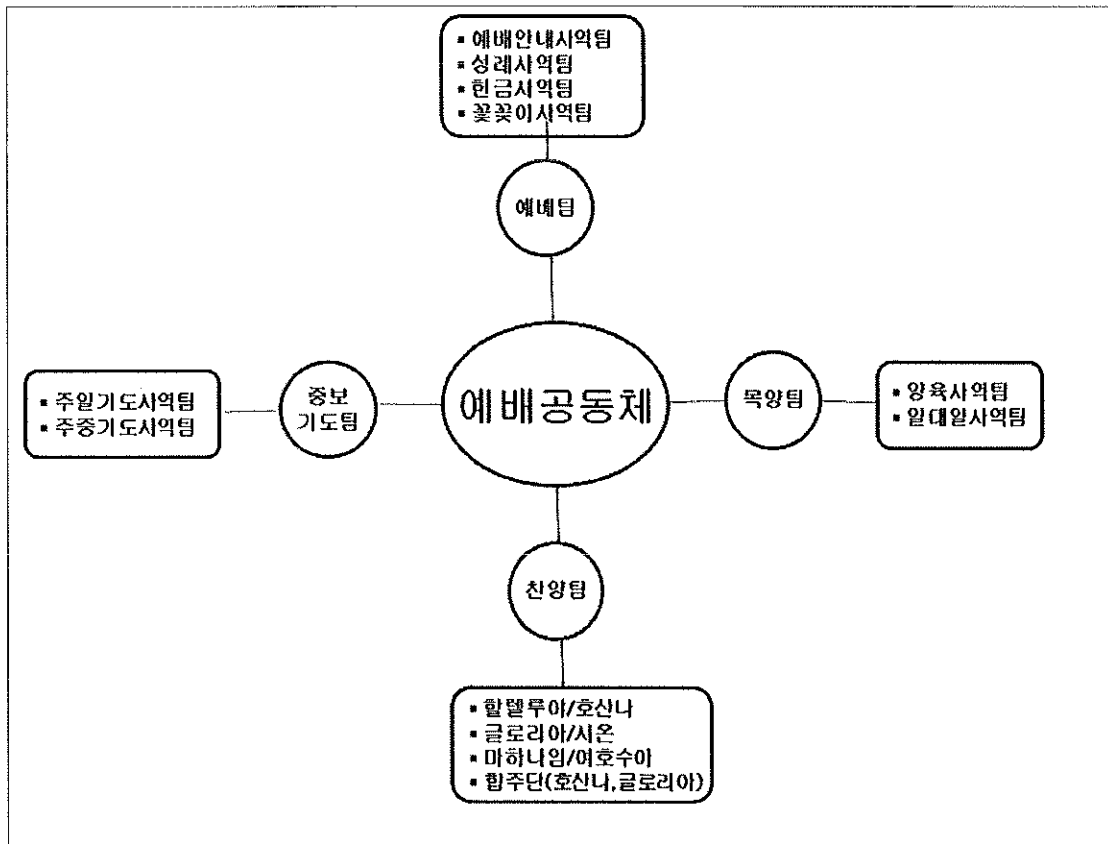
첫째, 영적훈련 부족의 문제이다. 예배사역과 관련한 예배, 찬양, 기도 사역팀은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인 훈련은 물론 외적인 자질의 훈련, 성경공부를 통한 훈련 등 여러 훈련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균형 있고 영감 넘치는 예배를 만들고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명감 부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회 예배 사역자들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예배 사역자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직장문제로 인해 교회일이나 예배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기 식의 팀 운영에서 오는 문제인 것이다. 자신이 맡은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명감의 부재는 예배를 향한 열망뿐만 아니라 소속감의 상실을 가져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지 못한다.

68) A. W. Tozer *예배인가 쇼인가*,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57.

사명감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교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평일에도 바쁘는데 주일에는 더 바쁜 슈퍼맨 교인들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보니 쉽게 지치거나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울 뿐이 사역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 광명교회 예배공동체 사역 모델



셋째, 실력부족의 문제이다. 예배공동체 팀장은 당회와 교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며 사역팀은 예배팀, 중보기도 사역팀, 목양팀, 찬양팀으로 구성된다. 각 사역팀장들은 사역팀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책임을 담당하며 광명교회 예배사역을 감당한다.

#### 가. 예배팀

예배팀의 존재가치는 모든 성도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

재를 경험하고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데 가치를 두며 불신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가치를 둔다. 또한 예배팀의 사명은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대상 16:29)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며 예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예배팀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중요성과 바른 신앙을 갖추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한다. 둘째, 예배의 준비를 위하여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셋째, 인원 배치도에 따라 적절히 인원을 배치하고 각각의 사역을 분배한다. 넷째, 각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한 숙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예배사역에 헌신할 사역자를 발굴 육성한다. 예배팀 안에는 예배 준비 사역팀, 예배안내 사역팀, 성례 사역팀, 헌금위원 사역팀, 꽃꽂이 사역팀 등 다섯 개의 사역팀이 있다.

#### (1) 예배준비 사역팀

예배 준비 사역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전략은 첫째, 예배 30분전 예배를 위한 인적, 물적 요소들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둘째,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준비하여 체크사항을 점검한다. 셋째, 모든 준비는 예배 30분전에 마친다. 넷째, 준비팀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예배 준비 사역팀의 사역 지침은 첫째, 강대상의 준비물을 체크한다. 세부 지침으로는 첫째, 담당자는 예배 시작 30분전에 도착하여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한다. 둘째, 주보를 점검하며 그날 강단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한다. 셋째, 음료와 수건, 악보, 주보, 기타 필요한 도구들을 예배시작 20분전까지 준비한다. 넷째, 강단의 음료는 생수를 올리도록 하고, 담임목사님이나 초청 설교자 또는 강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 원하는 음료를 제공한다. (여름에는 약간 찬 음료, 그 외 따뜻한 음료) 다섯째, 수건은 흰색 수건으로 부늬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물기가 너무 많지 않도록 적시고, 너무 많이 접어서 사용할 때 펼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여섯째, 예배 후 다음 예배를 위하여 강단물품을 정리하고 강단을 청소한다.

둘째, 예배환경을 점검한다. 세부지침으로는 첫째, 예배 30분 전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한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각의 항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셋째,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시 담당 사역자에게 알리고 빠른 조치를 취하게 한다.

셋째, 강단 꽃꽂이를 점검한다. 세부지침으로는 첫째, 예배 30분전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한다. 둘째, 강단의 화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다.

넷째, 강사 접대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외부강사 초청에 대한 여부를 행정실을 통하여 알아보고 외부강사 초청 당일 외부강사를 영접하고 강사 대기실로 안내한다(목양실 또는 새 가족실). 둘째, 외부강사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주보 등의 교회자료를 드린다. 셋째, 설교나 강의를 마치고 돌아갈 때 문밖까지 배웅한다.

## (2) 예배안내 사역팀

예배안내 사역팀은 예배 안내를 통해 성도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들보다 먼저 정해진 위치에 위치한다. 둘째,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으로 단장한다(통일된 복장). 셋째, 항상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고 미소로 인사한다. 넷째,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둔다.

예배 안내 사역을 위한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사항은 사역 전날 사역팀장이 팀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사역을 안내하며 예배 40분 전에 모여 복장, 이름표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둘째, 공통지침은 첫째, 예배 30분 전에 배정된 위치에서 안내를 시작한다(1층 로비, 광명홀 입구, 예배당 안 등). 둘째, 일찍 오는 성도들을 앞자리로 안내하고 의자의 가운데 부분부터 앉도록 안내한다. 셋째, 새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섬김이를 붙여준다. 넷째, 기도시간에는 움직임은 삼가도록 하고 기도 후 자리로 안내한다. 다섯째, 장애인 지정좌석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섬긴다. 여섯째,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안전을 위하여 계단과 교회 밖으로 이동을 도와준다. 일곱째,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자모를 우선으로 운행하며 노약자를 제외한 성도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엘리베이터 입구-“걷는 것도 선교입니다.” 문구 부착). 여덟째, 유아를 동반한 성도는 5층 자모실로 안내하거나, 유치부로 안내한다.

또한 예배안내 사역팀의 내부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자의 표정은

활기차고 밝은 미소와 간단한 인사로 맞이하고 태도는 공손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한다. 둘째, 안내요령은 ① 장애인, 새 가족을 우선하여 안내한다(지정좌석 확보). ② 앞자리부터 안내하되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③ 새 가족 확인 시 등록을 권유하되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방문카드를 작성케 권유한다). 셋째, 안내는 첫 찬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립하여 안내하고 첫 찬송 이후 뒷자리에 앉아 안내하고 예배 종료 후 현관 입구에 도열하여 환송하는 것으로 안내는 종료된다.

예배안내 외부 업무 지침은 내부 지침과 동일하게 안내자의 표정은 활기차고 밝은 미소와 간단한 인사로 맞이하고 태도는 공손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안내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밖을 보며 안내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로 인사하며 후보와 안내물을 나누어 준다. 둘째, 안내 종료는 시작 찬양이 끝날 때까지 안내한 후 함께 예배드린 후 예배 종료 후 현관 입구에 도열하여 환송 후 종료된다.

### (3) 성례 사역팀

성례 사역팀은 사역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절기를 비롯 목회일정에 따른 성례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성찬식의 준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사역팀장은 목회일정표를 보고 성례 일정을 확인한다(행정실, 교역자). 둘째, 포도즙은 1년 1회 사역담당자가 담근다. 셋째, 성례 1주일 전 준비기도모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성례주일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성찬에 필요한 기구들을 세척하고 준비한다. 다섯째, 강단에 탁자를 설치하고 성찬보를 준비한다. 여섯째, 성례 담당자들이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고 세례에 필요한 세례수를 준비하여 예배 30분 전에 탁자에 올려놓고 정면에서 십자가가 보이도록 성찬보를 덮어놓는다. 일곱째, 성례 후 성찬기와 세례기를 수거하여 세척하고 성찬보와 장갑을 세탁하여 제구함에 보관한다.

### (4) 헌금위원 사역팀

헌금위원 사역팀은 성도들이 예배실에 입장하면서 드린 헌금을 예배시 헌금순서에 맞춰 헌금바구니를 강단으로 운반하는 사역으로 서리집사 이상의 제직 중에서 자원자 또는 헌금위원 사역팀에서 선정된 제직이 감당하게 된다. 사역팀원은 예배 30분 전에 나와 배정된 장소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사역팀장의 안내를 받아 헌금위원으로

섬기게 된다. 사역팀장은 두 주전에 미리 사역팀원들을 배정하여 행정실로 보고하여 한주 전에 주보에 담당자를 게시함으로 사역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

#### (5) 꽃꽂이 사역팀

꽃꽂이 사역팀은 사역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매주마다 드러지는 강단 꽃 현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는 일과 연락을 취하는 일, 주일예배 및 각종 집회시마다 강단에 장식 할 꽃과 화분을 정하고 배치하는 일과 필요시에는 주문을 하여 배치를 하며, 화초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 나.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팀은 온 교우들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도록 하며 온 교우들이 중보 기도의 특공대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비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개발하고 교육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다.

중보기도팀의 사역 전략은 첫째,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굴한다.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시키셔서 영적 부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앞장서며 모든 삶의 본이 되도록 기도한다. 셋째, 중보기도 사역에 대하여 게시판을 이용 홍보한다.

중보기도학교 양육과정을 표로 정리한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1주차,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주차, ‘기도는 능력입니다’ 3주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4주차,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주차,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로 진행된다.

#### (1) 중보기도팀 일상 업무

중보기도팀의 일상 업무는 첫째, 중보기도 헌신자들의 출석을 점검한다. 둘째, 매주 중보기도 카드함을 열어 기도카드를 수집 및 분류한다. 셋째, 구분된 제목카드를 중보기도 테이블에 나누어진 제목 칸에 등록 순서대로 배치한다. 넷째, 기도카드 내용이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고쳐 재분류 한다. 다섯째, 기도기간이 지난 카드는 즉시 정리하여 파일 박스에 보관한다. 여섯째, 응답된 기도를 찾아 응답게시판에 붙여

놓는다. 일곱째, 기도편지는 내용을 점검한 후에 발송한다.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교훈적인 것은 담당자와 의논한 후에 발송한다. 여덟째, 비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놓는다. (기도카드, 볼펜, 일지, 메모지, post-it 등) 아홉째, 기도실을 깨끗하게 항상 유지, 청소한다.

<표 9> 중보기도학교 양육과정<sup>69)</sup>

교육주차	교육내용	담당강사
1주차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 목사
2주차	기도는 능력입니다.	담당 목사
3주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담당 목사
4주차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담당 목사
5주차	기도는 영적전쟁입니다.	담당 목사

## (2) 중보기도 팀원의 활동

중보기도 사역팀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실에 모여 리더의 인도에 따라 뜨겁게 찬양한다. 리더의 인도에 따라 기도할 제목을 소개하면 통성으로 한 기도 제목을 집중 기도한다. 또한 매일, 매 시간 기도 담당자는 자신의 기도시간을 엄수하여 중보기도실에 나와 중보기도카드에 있는 대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한다.

중보기도 사역의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첫째, 사역자들(담임목사, 부교역자, 평신도 사역자 등), 둘째, 주일 예배 및 성도들의 영적인 준비, 셋째, 주일학교 예배, 넷째, 영적으로 놀려있는 자들, 다섯째, 육체적으로 병든 자, 여섯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준비와 주일예배 설교를 위하여, 일곱째, 영감 있는 예배 여덟째, 기관 행사 아홉째, 선교사, 열째, 나라와 민족 열한째, 지역사회 영적 부흥, 열둘째, 예배 위원 및 사역자들 열셋째, 교우들의 영적인 삶과 건강, 열넷째,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 등이다.

## (3) 기도 제목 카드함 운영 및 기도카드 기입하는 방법

첫째, 기도 카드 한 장에 한 가지 기도제목만 기록 하고, 기도 신청자나 기도 대상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둘째, 가급적 모든 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도 카드

69) 하용조,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13).



에 전화 번호 란에는 기도 대상자가 아니라 기도를 요청한 기도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셋째, 기도편지를 받기 원한다면 명시하시고, 받을 사람의 주소를 기록한다. 넷째, 응답되어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기도마치는 날짜에 날짜를 기록한다. 다섯째, 다 기록한 기도카드는 기도함에 넣는다.

#### (4) 기도 응답카드를 기입하는 방법

기도 응답카드는 기도 응답카드 해당란에 응답내용을 간단히 적어 제출하면 카드를 중보기도실의 응답게시판에 게시한다.

#### 다. 목양팀

목양팀은 두 개의 사역팀으로 분리되어 양육 사역팀과 일대일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양육 사역팀

양육 사역팀은 광명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팀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전도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설함으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가치를 둔다.

양육 사역팀의 사명은 양육과정을 통해 변화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정과 직장,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있다.

양육 사역팀의 양육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단계는 새 가족 성경공부인 **행복한 만남**<sup>70)</sup> 5주과정이다. 이 과정은 광명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둘째, 제 2단계는 **영적 성장의 길**<sup>71)</sup>과정,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sup>72)</sup>과정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해도 된다.

70) 광명교회 편, **행복한 만남**.

71) 국제제자훈련원, **영적 성장의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72) 두란노 편,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10).

셋째, 제 3단계는 *제자의 삶*<sup>73)</sup>은 남, 여성 지도자 제자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1, 2단계 과정을 수료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해야 목장리더로 임명 받을 수 있다.

넷째, 제 4단계는 *예수님의 사람*<sup>74)</sup>과정이다. 이 과정은 13주 과정으로 수료 후 일대일 양육자 훈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훈련을 마친 성도는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인도할 사역자로 세워진다.

#### 라. 찬양팀

찬양팀은 “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의 말씀을 따라 찬양은 하나님의 피조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가치를 둔다.

찬양팀의 사명은 첫째,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둘째, 우리는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광명교회 찬양팀은 할렐루야 찬양대 (1부), 호산나 찬양대 (2부), 글로리아 찬양대 (3부), 시온 찬양대 (수요기도회)와 주일 찬양예배 찬양팀인 마하나임 찬양단, 수요기도회 찬양팀인 여호수아 찬양단, 그 외 여성중창팀, 남성중창팀, 오케스트라, 남·여 선교회 찬양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침은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 진행된다.

찬양팀의 비전은 첫째, 주일 찬양 예배가 은혜와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한다. 둘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찬양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사역 한다. 셋째, 세 가족을 위해 영접, 동화, 흡수, 감화, 성숙을 위한 찬양으로 사역 한다. 넷째, 예배 갱신의 주요 부분으로서의 찬양단 사역이 되게 한다.

## 2. 교육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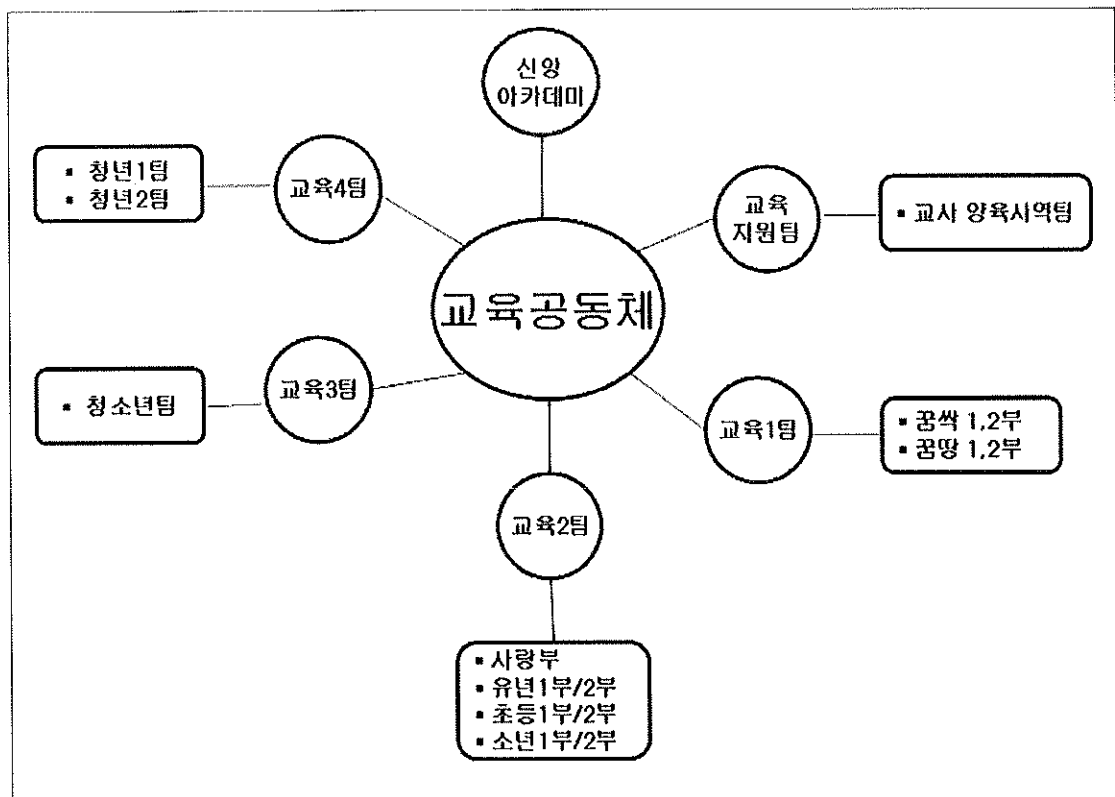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이렇게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은 교회학교의 부흥에 힘입어서였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장년 수의 몇 배가 되었다. 장년이 20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학교 학생 수는 4-500명 썩 모이곤 했다. 이들이 자

73) 광명교회 편, *제자의 삶* (서울: 광명교회 홍보출판팀, 2013).

74)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 (서울: 넥서스CROSS, 2012).

라나서 지금의 교회의 주역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심은 것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장년의 수는 수천 명에 이르지만 교회학교 학생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교회의 기반이 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그림 6> 은 광명교회 교육공동체의 사역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광명교회 교육공동체 사역 모델



이렇게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인구의 감소가 그 한 몫을 하고 있다. 핵가족화의 현실은 국가 존폐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쇠퇴하고 있으며,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학교가 침체되는 교회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광명교회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장점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새벽기도의 영성과 주일 성수의 열심과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의 모습을 세워나갔다. 그 자손들이 지금의 이 시대의 인재로 세워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테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 것처럼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여야 할 때다. 그러므로 철저한 현실 직시와 대안을 살펴 한국교회의 침체의 늪에서 새롭게 극복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팀장은 당회와 교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며 교육공동체의 사역팀은 교육 1, 2, 3, 4팀과 교육지원팀, 신앙아카데미팀이 있으며 소속사역팀으로는 영·유아부에 해당하는 꿈땅 1부, 2부, 유치부에 해당하는 꿈썩 1부, 2부, 장에우를 위한 사랑부, 유년1부, 2부, 초등 1부, 2부, 소년 1부, 2부, 청소년 1팀, 2팀, 청년 1팀, 청년2팀, 교사 양육사역팀 등이 소속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역팀장들은 사역팀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책임을 담당하며 광명교회 교육사역을 감당한다.

#### 가. 교육 1, 2, 3, 4팀

교육팀의 4개의 팀은 교육1팀에 꿈땅 1부, 2부와 꿈썩 1부, 2부가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 2팀에는 사랑부, 유년 1부, 2부, 초등 1부, 2부, 소년 1부, 2부가 소속되어 있고, 교육 3팀에는 청소년 1팀, 2팀, 교육 4팀에는 청년 1팀, 청년 2팀이 소속 되어 있다. 사역은 각 팀의 교육계획에 준하여 시행함으로 세부 지침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나. 교육지원팀

교육지원팀은 교육팀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교사모집,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각 교육팀에 배치하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기도회 (연간 4회)를 주관한다. 둘째, 신입교사 모집과 교육을 위한 교사아카데미 (5차)를 주관한다. 셋째, 학부모의 요청에 응답하는 학부모세미나를 실시

한다. 넷째, 성탄발표회를 주관한다. 다섯째, 교육사역팀 정기모임 (월 1회)을 주관한다.

#### 다. 신앙아카데미팀

신앙아카데미팀은 광명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들을 주관하는 사역팀이다. 2015년 현재 개설된 과목은 성지순례반, 구약성서 개관반, 신약성서 개관반, 인물성경공부반, 성경맥잡기 등이 있다.

### 3. 섬김 공동체

섬김 공동체의 팀장은 당회와 교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며 섬김 공동체의 사역팀은 사역지원팀, 복지팀, 장학팀, 목회지원팀, 사랑의 식탁팀, 경조팀, 차량관리팀, 재정 감사팀, 재정팀, 시설관리팀 등의 10개의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 공홀사역팀, 청솔대학 사역팀, 행사지원 사역팀, 목회지원 사역팀, 소망찬양대, 헌금계수 사역팀, 회계관리 사역팀 등의 세부 사역팀이 소속되어 있다.

각 사역팀장과 소속 사역팀장들은 사역팀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책임을 담당하며 광명교회 섬김 사역을 감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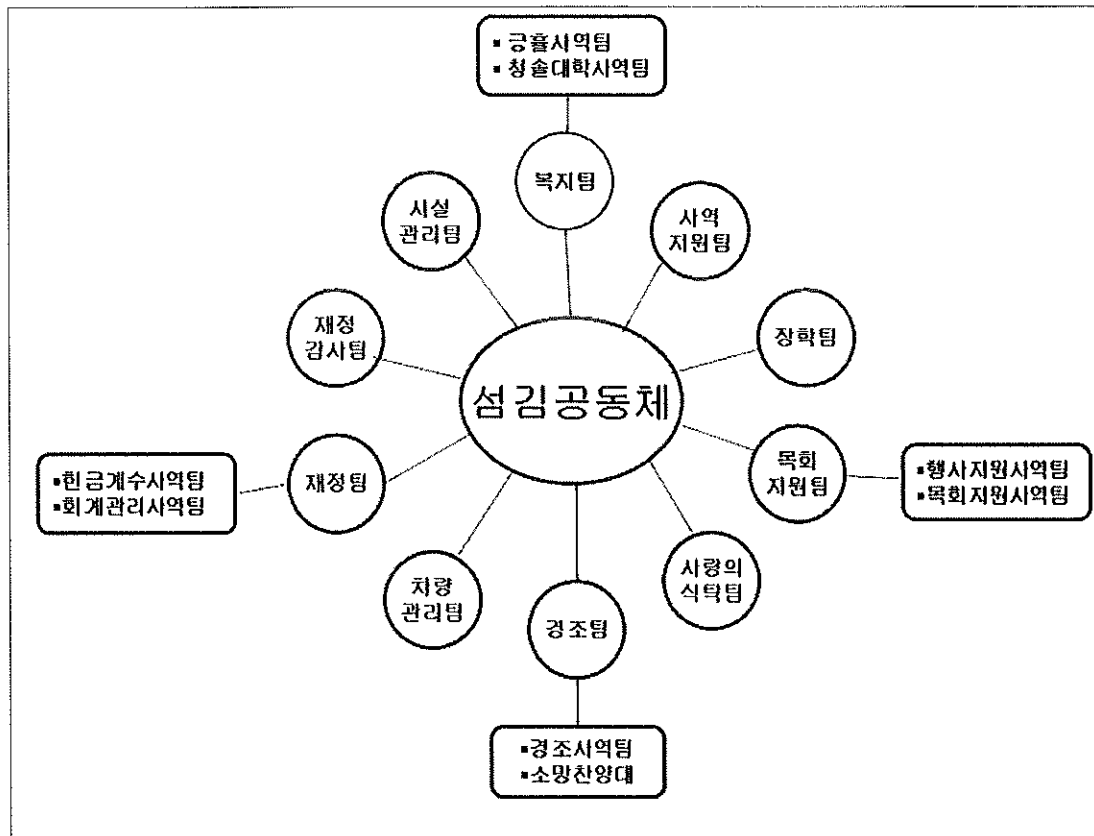
#### 가. 사역지원팀

사역지원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말씀에 사역의 가치를 두고 사역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하게 하고 사역에 배치하는 일을 주요 사역으로 한다. 또한 사역 박람회를 준비, 홍보, 실행 및 그 후속 조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담당하고 시대와 문화와 지역사정에 요구되고 걸맞은 사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역을 위한 방안은 첫째, 새 가족 성경공부 과정 중 마지막 날 (5주차)에 본 은사확인 및 사역지원 과정을 넣어서 이를 홍보 실시함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사역에 배치하여 사역케 하고 둘째, 사역팀장 회의와 사역 실행 모임이 잘 운용 되도록 홍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사역에 필요한 지침은 다음과 같

다.

<그림 7> 광명교회 섬김 공동체 사역 모델



첫째, 사역지원은 각 사역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개별 사역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사역팀장/총무모임, 팀장/총무전체 모임개최)를 개최하여 사역팀들을 지원하며, 사역팀 간 연합사역의 수립 및 지원, 신설사역팀의 사역안정화 위한지원과 사역활동이 저조한 사역팀활동 동역과 지원, 각 사역팀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즉각지원 한다.

셋째, 사역자 발굴은 개인의 은사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역자와 리더를 발굴한다.

넷째, 매년 10월에 있는 은사 사역 박람회를 통해 사역자 발굴 및 사역자를 재배치한다.

다섯째, 사역개발은 교회의 비전과 목회방침에 따라 요구되는 신규사역을 발굴하고 이를 독립된 사역팀으로 세워지도록 지원하며, 기존에 진행중인 개별 사역내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역이 되도록 집중 지원하고, 실제 운영될 때 중복되는 사역의 수정과 조정을 하며, 각 사역팀의 사역 매뉴얼을 수립 및 제작, 지원하여 개별사역의 운영방법과 실행방법을 표준화 한다.

사역 지원팀에서 은사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 운영할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 스쿨, 둘째, 은사사역 훈련학교, 셋째, 은사 사역박람회(매해 10월에 진행하고 있음)이다.

은사배치를 위한 사역지원팀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발견과정이다. 1일 또는 2일간의 세미나를 통하거나 행복한 만남 5주차에서 진단한 은사진단 검사지를 통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관심사, 성격유형, 은사)를 발견,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석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역처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 2단계 상담과정이다. 은사 확인 단계를 거친 성도들을 일대일의 개인 접촉을 통한 상담을 통하여 각 성도의 프로필에 따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내리신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적합한 사역처를 찾아가도록 해 준다.

상담시 주요 질문 사항들은 ① 사역 경험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② 열정 ③ 은사 ④ 성격유형 ⑤ 영적 성숙도 ⑥ 주간 가용 시간 ⑦ 가능한 사역 ⑧ 사역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등이다. 상담을 마치면 상담 대상자 개인별로 상담결과표, 교적부, 개인프로필을 철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셋째, 3단계 배치과정이다. 은사중심사역의 목표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모든 성도는 청지기다.”라는 이론을 실행하게 한다. 배치과정에서는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컴퓨터에 입력하고 정리한다. 차후의 은사배치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인사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은사 배치 세미나를 이수하고 사역 배치를 받았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배치된 사역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재배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가능한 제 2, 제 3 순위의 사역에 배치토록 하고 이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는 부득이 은사배치 세미나를 새롭게 이수한 후에 재 상담을 거쳐서 재배치하도록 한다.

## 나. 복지팀

복지팀은 광명 공동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명령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고 봉사현장에 나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사역의 가치를 둔다. 현재 복지팀 사역은 주중 노인학교 개념의 청솔대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공활사역 두 개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

### (1) 청솔대학

청솔대학은 본 연구자가 광명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여 제일 먼저 신설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처음 모집 당시에는 2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120명에 이르고 있다. 입학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청솔대학의 주제 성구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6:4)이며 2015년도 표어는 “생명이 풍성한 청솔대학”(요 10:10)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솔대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령화시대 속에서, 광명교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교인 및 지역주민들이 노년기의 삶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세워졌다.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청솔대학의 운영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와 활발한 교제,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 등을 통해 구원받은 어르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여유를 만끽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학기는 2학기제로, 1학기는 16주 과정(3월 10일-6월 30일) 2학기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년 2회에 걸쳐 5월과 10월에 은빛여행이란 이름을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학기 종강에 맞추어 주일 오후예배에 수료 발표회도 진행하고 있다. 학사 일정 중 진행하는 과목은 실버 레크리에이션, 윗놀이, 비누공예, 웃음치료, 생일축하 및 공연, 음식 만들기, 영화상영, 컬러링 색칠, 풍선아트, 노래방, 명랑운동회 등이다. 청솔대학 시간표는 <표 10>와 같다.



&lt;표 10&gt; 청솔대학 시간표

모임(매주 수요일)	시간	장소
체조	10:00~10:30	지하1층 비전홀
성경이야기	10:30~10:45	지하1층 비전홀
취미활동	10:45~11:55	지하1층 비전홀 또는 식당
점심식사	12:00~13:00	지하1층 식당
귀가	13:00~	

## (2) 공홀사역

공홀사역의 대상은 지역 사회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이다. 선정 방법은 당회와 교역자, 목장리더 또는 신청자를 통해 선발하고 지역사회 유관단체를 통하여 선정하기도 한다.

공홀 사역의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보조비는 가정 형편에 따라 5~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둘째, 추석, 설, 성탄절에는 모금 활동(바자회, 일일찻집 등)을 하여 명절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한다. 셋째, 불신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초청한다. 넷째, 방학에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끈다. 다섯째, 작아진 옷을 수거해 깨끗이 손질하여 가정에 맞게 분리 후 전달한다. 여섯째, 은사 발견을 통해 지원한 사람을 조에 편성해 알맞은 가정과 연결 (자매결연)해 지속적으로 후원 가정을 늘려간다. 일곱째, 4인 1조가 되어 매달 1회 방문한다.

방문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① 첫 방문 시는 5000원 선에서 다과를 준비한다. ② 조별로 밑반찬을 준비한다, ③ 그 외 나누어 줄 것을 준비한다.

둘째, 팀원 모임 단계에서는 ① 약속된 시간에 교회 소예배실로 모인다. ② 팀장의 인도로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셋째, 방문단계에서는 ① 인사 후 잠시 둘러앉아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②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돕고 그간 있었던 일을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③ 생활보조비를 전달한다. (월 1회) ④ 밑반찬 등 나눌 것을 전달한다. ⑤ 팀장이 축복기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약속을 정한다. (소요시간 30~1시간 정도)

### 나. 장학팀

장학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교회 내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인근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교회 각 부서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발한다. 둘째, 상시 부서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의 혜택을 준다. 셋째, 시청 및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최저생계학생 또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비를 보조해 준다.

장학사역팀의 재정 확보는 교회 장학헌금과 목적헌금 등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용가능한 지 파악하여 장기적인 장학계획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장학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교회 안과 밖에서 필요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

장학생선발은 교회 내 학생의 경우는 매 학기 시작 전 (2월, 8월초) 교육팀 교역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후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교회 밖 수혜자의 경우엔 시청 및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어 인근 지역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최저생계학생 등을 확보하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라. 목회지원팀

목회지원팀은 목회전반에 따른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목회 사역의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역의 범위는 매해 수립되는 목회계획을 바탕으로 교역자 및 사역팀의 요청시 운영된다.

세부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새벽 기도시 출근자를 위한 아침식사 ② 온 세대 연합 예배시 지원(의자 및 부대 세팅) 연 2회: 교육팀과 연계 ③ 십자가 성화 전시회 지원 ④ 교구만남의 날 지원: 목양팀과 연계 ⑤ 송구영신예배지원 (의자 및 부대세팅): 예배팀과 연계 ⑥ 외부강사 예전: 행정실과 연계 ⑦ 기타 필요시

#### 마. 사랑의 식탁팀

사랑의 식탁팀은 주일 식당 운영 사역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나눔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역팀이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역에 임함은 물론 월 1회 정기 모임시 평가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체크하고 다음 달의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팀원들의 협동심을 고취를 위해 년 2회 (5월 / 10월) M/T를 실시하며 주방 청결 및 시설관리를 위해 관리항목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매주일 준비할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구성하고 매주 편성된 팀원들에 의해 음식을 만들고 공급한다. 기타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분기별 주방청소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② 주방 위생관리를 위해 소독을 실시한다. (여름철 : 주1회 그 외 계절 : 월1회) ③ 주방시설 점검 및 보수는 수시로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④ 비품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시로 관리하고 년1회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⑤ 주방사용시 주의사항을 홍보 및 개시 한다. ⑥ 주방사역팀이 주관하여 12월중 김장을 준비한다.(유관기관과 협력) ⑦ 기타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 제작 및 배포한다.

#### 바. 경조팀

경조팀은 경조사역을 통해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가치를 두는 사역팀으로 경조사의 의식 절차를 연구 발전시키는 사역, 경조사의 체계화를 위해 경조사 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역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경조사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시스템화 하고 둘째, 경조사 내규를 정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처리하며 셋째, 경조 사역에 필요한 비품 등을 확보한다. 넷째, 경조사에 필요한 예절을 정기적으로 가르친다. 다섯째, 경조사 행사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사. 차량관리팀

차량관리팀은 교회를 방문하는 자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자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예배 및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주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이용을 선교매체로 활용하며 성도가 차량을 필요로 할 때

규정에 따라 차량을 제공하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차량관리팀 운영방안은 첫째, 주차장소와 베치를 안내한다. 둘째, 주차위원의 주차요령, 안내요령을 교육하여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셋째, 차량 운행시간과 노선을 성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운행 기록을 남겨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다섯째, 차량관리 담당자를 두어 차량 검사 수리 정비를 체계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여섯째, 모든 차량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교회자산을 각인시킨다.

#### 아. 재정감사팀

재정감사팀은 당회와 제직회에서 임명 받은 자로써 교회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재정관리의 발전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역을 하는 팀이다. 재정 감사팀은 업무흐름에 대한 감사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당회 및 제직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만들어 책자로 비치하여 원하는 교인들이 향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자. 재정팀

교회의 재정팀은 당회, 제직회에서 결의된 연간 계획안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팀으로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므로 목회사역이 지연됨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재정팀 사역자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성도들은 재산의 사용권과 관리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므로 항상 청지기의 사명감에 입각하여 회계실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보고대상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보고하는 것이니 만큼 내적 진실성과 양심성이 중시된다. 또한 전 교인의 수입에 대한 정보 등을 알게 되므로 과묵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재정팀의 사역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 관리를 전산화하여 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둘째, 재정계획에 따라 교회사역이 운영되도록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 셋째, 교회재정과 재산의 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헌금 생활의 필요와 유익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 차.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역으로써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 내 건물 및 시설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봉사를 통하여 팀원간 상호 협조와 사랑을 배양하도록 한다.

시설관리팀의 세부 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분야를 세분화 한다. 둘째, 각종 비품목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셋째, 각종 점검, 수리 공구 및 장비를 보유한다. 넷째, 자주 보수 교체하는 품목은 항상 그 예비품을 보유한다(형광등, 화장지 등). 다섯째, 전문분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한다. 여섯째, 청소 분담을 세분화시켜 사역케 하고, 팀장의 점검이 이루어지게 한다. 일곱째, 청소용 비품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정리한다(비품 목록 작성). 여덟째, 청소 상태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아홉째, 교회내의 특별행사가 있을 때 교회 내 대청소를 실시한다. 열째, 청소나 청결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 행사임을 숙지하여 예배 전 후에 꼭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을 청결하게 한다.

### 4. 선교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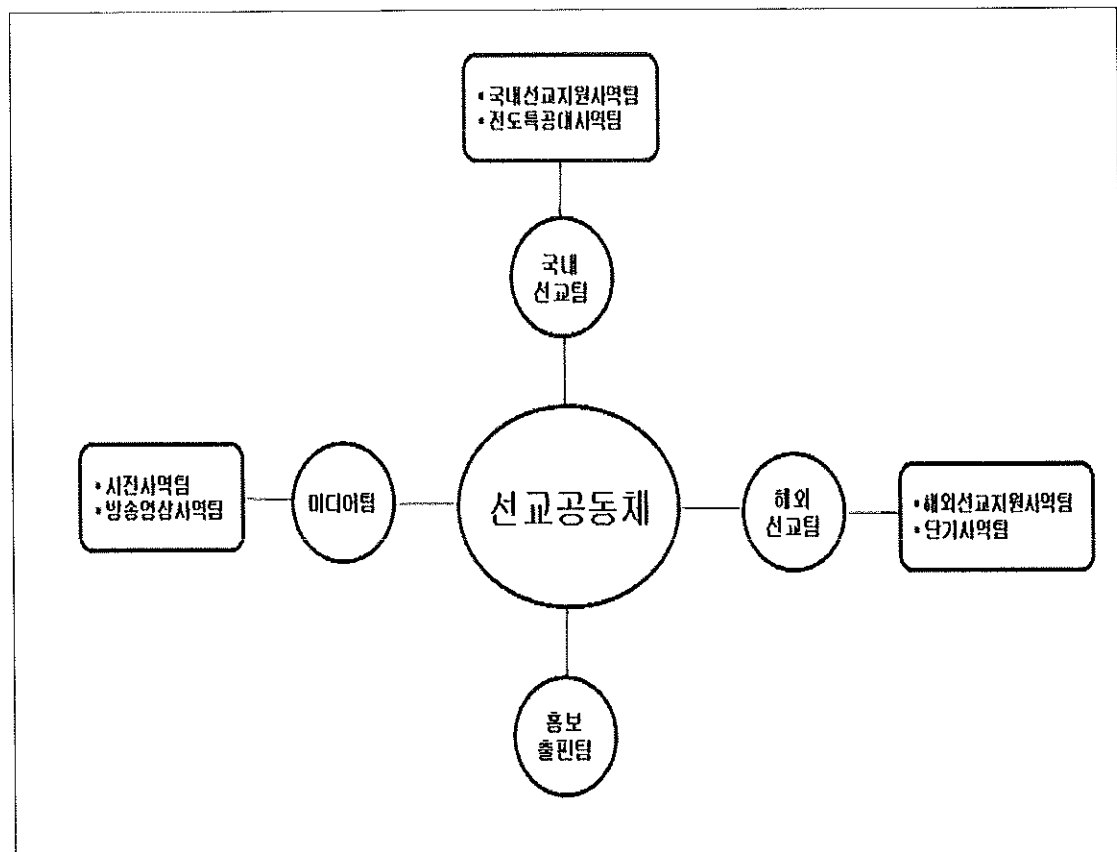
선교공동체의 팀장은 당회와 교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며 선교공동체 안에서는 국내선교팀, 해외선교팀, 홍보출판팀, 미디어팀 등의 4개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는 국내선교지원사역팀, 전도특공대 사역팀, 해외선교지원사역팀, 단기선교팀, 사진사역팀, 방송영상사역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각 사역팀장들은 사역팀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책임을 담당하며 광명교회 선교사역을 감당한다.

선교공동체의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사에 따라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교육한다. 둘째, 모든 성도들이 선교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장별·선교회별 후원체계를 조직한다. 셋째, 해외 및 국내선교현장을 탐방하여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갖게 한다. 넷째,

관련 단체 및 선교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선교 정보를 공급받고, 효과적인 선교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다섯째, 병원 환자 그리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림 8>은 광명교회 선교공동체 사역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광명교회 선교공동체 사역 모델



#### 가. 국내 선교팀

장년 50명 미만, 1년 예산이 2,500만원 미만의 미자립 교회가 한국교회의 40퍼센트가 된다고 한다. 6만 교회, 10만의 목회자, 1,000만의 성도라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 뒤의 어두운 이면이다. 미자립 교회는 한국교회의 숙제이다. 특히, 목회적 노하우가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물질, 인적으로 후원해주지 않고서는 미자립 교회들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 및 기관사역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선교단체와 기독교 기관들이 생겨났지만 이들의 사역은 정착된 성도들이 헌금과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도록 도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어찌 보면 선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광명교회 선교공동체의 국내 선교팀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땅을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면서 2015년 현재 43개의 국내 선교지를 섬기는 사역팀이다. 대부분은 국내 미자립 교회이며 매월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후원하고 매년 실사를 통해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여 더욱 격려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국내교회의 실정을 알게 하고자 남녀선교회 모두가 함께 국내선교지를 위해 1선교회 당 1개 교회를 담당하여 기도로 후원하여 재정적인 지원으로 돕는다.

<표 11> 광명교회 국내 선교 현황

광명교회 국내 선교처				
가성교회	예안교회	삶의 비전교회	서울중국인교회	낮은예수마을교회
성산교회	주광교회	예수사랑교회	서울샤론교회	안양보배교회
송내교회	친들교회	기도온교회	성민교회	한독가선교회
에덴교회	호원교회	병점광명교회	세움교회	예수소망교회
조은교회	주찬양교회	총회문화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기독미래포럼
한아봉사회	예샘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총회농아인선교회	한국교회환경연합
공주원로원	행복한교회	정유한양선교회	햇살보금자리	영등포산업선교회
굿티비	성지연구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푸른나무북한선교회
기독교공보	동서선교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광명지부)		계: 43개처

또한 교회 내 후원 교회 게시판을 활용하여 매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후원교회를 향한 기도제목과 후원의 모습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

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한다.

국내선교를 위한 재정보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매년 11월에 선교예산을 세운다. (선교작정헌금+교회재정보조금) 둘째,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도록 한다.

셋째, 선교 게시판에 제작하여 성도들이 선교헌금이 어느 곳에 집행되는지 알도록 공개한다. (주보, 게시판) 선교지 후원대상자 선정은 첫째, 선교기관 및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당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최종 선정하며, 둘째, 1년 단위로 선정하고 1년간 교회와 교제, 연락, 선교 보고 등을 평가하여 매년 11월에 재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교헌금의 송금방법은 첫째, 매년 11월에 선교지 후원 대상자의 계좌를 확인한다. 둘째, 송금은 계좌로 매월 1회 송금한다. 셋째, 송금자는 교회 이름으로 한다.

전도 사역팀은 전도특공대 사역을 하는 팀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노방전도를 진행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전도 세미나(연중 1회)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전도 전략을 세우고 열의를 다짐한다. 둘째, 연중 1회(가을) 'VIP전도축제'를 열어 기도하며 뿌린 전도 대상자를 전도한다. 셋째, 전도용품(전도책자-향기 나는 생각) 등으로 교회를 알릴뿐만 아니라 일대일 전도, 관계전도 등을 실시한다. 넷째, 전도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부흥을 일으킨다.

전도특공대 사역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빌립 전도대실에서 모인다. (시간은 변동가능) 둘째, 준비모임은 ① 찬양을 한다. ② 담임교역자가 10분정도 말씀을 전한다. ③ 그 날의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 ④ 그 날의 배포할 전도용품을 수령한다(주보, 전도지, 차, 일회용 물휴지 등). 셋째, 전도방법은 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② 전도물품을 배치한다. ③ 전도물품을 갖고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한다. ④ 교회전도지(주보)와 전도용품배포 한다. 넷째, 전도 대상지역 설정한다. 다섯째, 전도 후 교회에 모여 전도 보고 및 평가회를 한다.

#### 나. 해외 선교팀

광명교회 선교공동체의 해외 선교팀은 팀사역을 통해 땅 끝을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팀이다. 광명교회 해외 선교팀은 세상을 향한 섬김을 비전



으로 모든 성도와 팀원들이 힘을 합쳐 사역한다. 그러나 위에 거론된 문제들을 생각하여 총회차원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대륙을 모두 지원하려고 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리핀 두 곳, 몽골,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선교지 각각 한 곳이다. 또한 교회 차원에서의 지원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자 22개의 여전도회와 8개의 남선교회가 각각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후원의 대상을 삼고, 매달 정기적인 후원과 매일의 기도로 섬기고 있다. 선교팀을 중심으로 하여 동계와 하계 선교지 방문 및 비전트립을 시행하여 선교지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표 12> 광명교회 해외 선교 현황

광명교회 해외 선교처	
필리핀: 주일* 선교사	필리핀: 김호* 선교사
몽골: 김영* 선교사	말레이시아: 이용* 선교사
뉴질랜드: 김용* 선교사	아프리카: 김영* 선교사
중국W시: 주의길 선교사(가명)	계: 7개처

그리하여 교회와 선교지와의 국내, 국제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선교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을 위한 재정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11월에 선교예산을 세운다. (선교작정헌금+교회재정보조금) 둘째,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도록 한다.

셋째, 선교 게시판에 제작하여 성도들이 선교헌금이 어느 곳에 집행되는지 알도록 공개한다. (주보, 게시판) 선교지 및 후원대상자 선정은 첫째, 선교기관 및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당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최종 선정하며, 둘째, 1년 단위로 선정하고 1년간 교회와 교제, 연락, 선교 보고 등을 평가하여 매년 11월에 재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교헌금의 송금방법은 첫째, 매년 11월에 선교지 후원 대상자의 계좌를 확인한다. 둘

째, 송금은 계좌로 매월1회 송금한다. 셋째, 송금자는 교회 이름으로 한다.

단기선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해외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광명교회가 파송, 또는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및 지역 단체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교회를 도우며, 현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기선교의 지역선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명교회가 파송 또는 지원하고 있는 해외선교사의 선교지역 중에서 우선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선정할 수 있다. 둘째, 단기 선교 지역 선정에는 당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최종결정한다. 셋째, 단기 선교지역 선정은 최소 출발 3개월 전에 하도록 한다.

#### 다. 홍보출판팀

현대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다. 온갖 영상, 출판물을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접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한 정보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현대 교회는 기독교 영상, 기독교 출판물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개인미디어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추세들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세상에서 제공하는 미디어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콘텐츠의 질적 수준의 부족과 함께 봉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형 교회가 채택할 수 없는 유급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지 못함으로 교회의 소식, 성도의 나눔, 교제 등에서 좀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나누어 갈 수 없는 것도 미디어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광명교회 선교공동체의 홍보출판팀은 미디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좀 더 풍성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팀이다.

‘하모니’라는 교회 생활 개간지를 통해 교회의 소식, 성도들의 삶의 간증, 신앙관련 전문지식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발간해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향기 나는 생각이라는 매월 발행되는 간략한 소

식지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정보와 은혜를, 그리고 가정과 사업처에서 전도를 향한 전도지와 읽을거리로 제공하기도 한다. 교회 내 팀, 부서 및 교회 행사에 대한 부분별한 광고지 부착을 통한 건물과 환경의 훼손을 막고자 일관된 홍보의 틀을 제공하며 게시판을 관리하여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과 함께 올바른 교회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회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함께 담임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의 설교 및 찬양을 업로드하여 성도들이 일상의 삶속에서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통해서 미디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적 미디어 환경 제공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 라. 미디어 사역팀

미디어팀은 방송영상 사역팀과 사진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방송영상 사역팀

방송영상 사역팀은 방송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효율적이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예배시 영상 송출, 홈페이지 설교영상이나 방송 영상들을 통해 미디어 선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미디어팀 사역을 위한 지침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 전 방송장비의 완전 점검과 준비를 마친다. 둘째, 방송장비의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친다. 셋째, 효과적인 방송 사역을 위해 사역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개발한다. 넷째, 기자재를 잘 사용하는 기능자를 발굴 육성한다. 다섯째, 조명과 방송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기능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여섯째, 모든 방송제작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편집 디자인 한다. 일곱째, 시대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되 영상촬영 및 제작한다.

##### (가) 음향 담당

첫째, 기본적인 음향 레벨(0)을 기억한다. 둘째, 실제 음을 듣는 위주로 음향 레벨을 조절한다. 셋째, 믹서기에 악기 및 보컬라인을 기록한다. 넷째, 마이크 상태 확인 및 케이블 선들의 배열 등 전기의 보수 수리한다. 다섯째, 예배시작 10분전에 녹음(녹

화) 및 마이크 배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나) 프레젠테이션 담당

첫째, 예배 20분전 준비 완료한다. 둘째, 찬송가, 성경말씀 놓치지 않고 한 박자 빠르게 넘긴다. 셋째, 파워포인트 배경 등 수시로 업그레이드 한다. 넷째, 빔 프로젝트는 예배 20분전에 준비가동 해보고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사진 사역팀

사진 사역팀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보급, 관리, 보관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모든 교역자, 각 부서, 각 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만들어 행정의 편리성과 통일성을 이루어 가는 것에 힘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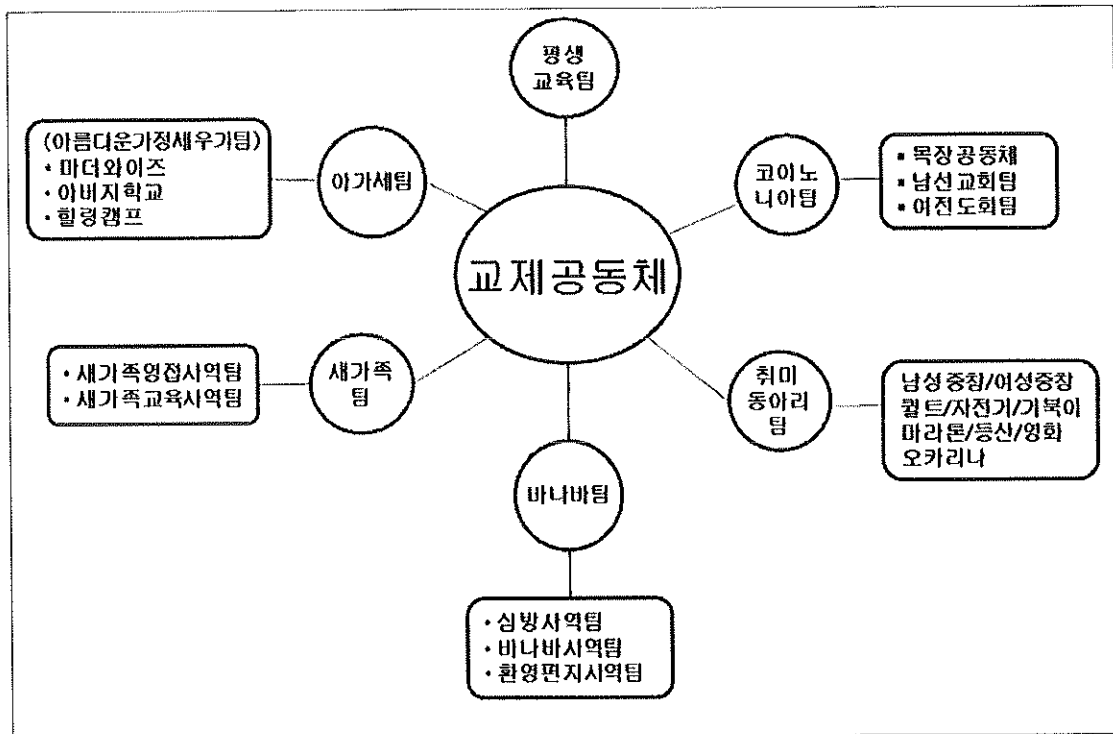
세부적인 사역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팀에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의 사진, 자료들을 수집, 보관한다(모든 사진, 기획서, 행사 Q-Sheet, 전단지 등을 모은다). 둘째, 예배 동영상 및 행사 동영상, 사진 등 컴퓨터 자료도 방송영상 사역팀과 연계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 5. 교제공동체

교제공동체의 팀장은 당회와 교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며 교제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팀, 새 가족팀, 바나바팀, 평생교육팀, 코이노니아팀, 취미동아리팀 등의 6개 팀과 소속 사역팀으로 Mother Wise, 아버지학교, 가족힐링캠프, 새가족 영접사역팀, 새가족 교육사역팀, 심방사역팀, 바나바 사역팀, 환영편지 사역팀, 목장공동체, 남선교회팀, 여전도회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각 사역팀장들은 사역팀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책임을 담당하며 광명교회 교제사역을 감당한다. <그림 9>는 광명교회의 교제공동체 사역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제공동체 팀사역 중, 새 가족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회정착과 신앙성장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 사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그림 9&gt; 광명교회 교제공동체 사역 모델



#### 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큰 가정의 모습이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화목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정은 작은 교회의 모형을 따라 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교회 내 활동만을 강조하여 사역의 자리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 오는 데에 급급하였지만, 정작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의 모습, 부모와 자식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가정이 깨지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결과이다.

광명교회 교제공동체의 아가세팀은 건강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팀이다. 담임목사의 건강한 가정을 향한 목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세 가지 주요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

첫째는, 'Mother Wise 사역'이다. Mother Wise 사역을 통해 사랑받는 아내의 모

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돕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깨닫게 한다. 또한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채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인도한다.

둘째는, 아버지학교 사역이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한다. 또한 바쁜 삶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는, 가족캠프사역이다. 여름을 맞아 건강한 휴가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여름 캠프를 통한 가족의 하나 됨을 성도들의 가정에 선물한다. 가족과 함께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 된 장소에서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서로의 역할을 위한 세미나 등을 준비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내용들을 직접 캠프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아가세팀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채워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 (1) Mother Wise<sup>75)</sup> 사역

Mother Wise는 어머니들을 위한 사역으로, 어머니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물려줄 수 있는 여성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 체계적인 말씀 연구와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방법들을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자녀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Mother Wise에 참여하는 연령은 기혼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누구나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주제의 특성상 비기독교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일정은 각 과정별로 ‘지혜’<sup>76)</sup>, ‘자유’<sup>77)</sup>, ‘회복’<sup>78)</sup> 세 가지 주제로 탄력적

75) Mother Wise 사역은 카도 국제 선교회([www.kardo.org](http://www.kardo.org))에 의해서 세계 Mother Wise와 파더 와이즈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를 Denise Glenn은 Mother Wise 사역을 그의 남편 david는 Pather Wise 사역을 주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은영 사모가 Mother Wise Korea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http://www.motherwise.or.kr/mw/index.php>

76) Denise Glenn, *지혜*, 원혜영 역(서울: 디모데, 2005.)

77) Denise Glenn, *자유*, 김진선 역(서울: 디모데, 2014.)

78) Denise Glenn, *회복*, 원혜영 역(서울: 디모데, 2015.)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5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 1회 교회에 모여 소그룹모임 형식으로 한 주간 동안 공부한 말씀과 도전되는 내용들 등에 대하여 리더 중심으로 나눔을 갖게 된다.

Mother Wise를 통한 좋은 점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우고 그 위에 여성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들을 재정립하는 교육적인 측면과 생활 숙제들을 통해 가정에서 적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적 건강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남편들도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Mother Wise 프로그램 참여에 응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주중모임 시간표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3> Mother Wise 시간표

시간	내용	비고
10:30 - 10:40	찬양	찬양팀
10:40 - 11:10	시작기도 & 주중과제점검	
11:10 - 11:30	티칭 <sup>79)</sup>	
11:30 - 12:25	조별기도, 조별 나눔	
12:25 - 12:30	해피맘, 마무리	

## (2) 아버지학교 사역

아버지학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본 교회에서 개최함으로 남자 성도들의 아버지 됨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가치를 둔다. 또한 교회 밖 남성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에 동일한 가치를 둔다. 아버지학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운영된다. 아버지학교 표어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이며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5주간의 교육주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 5개 주제이다.

79) 티칭은 다음에 배울 과에 대한 예습활동의 의미로 진행된다.

&lt;표 14&gt; 아버지 학교 일정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1주차	아버지의 영향력
2주차	아버지의 남성
3주차	아버지의 사명
4주차	아버지의 영성
5주차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개설이 되어 참석자도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IMF 이후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 의 참석자가 급증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으로 2004년부터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열린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교회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본 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현재로써는 제 1기를 수료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본 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사회 일반인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가는 아버지학교가 되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3) 부부 및 자녀를 위한 가족 힐링 캠프의 실제

가족 힐링 캠프는 격년으로 진행되는 온가족 수련회로 20가정씩 정원만 모집하여 <표 15>와 같이 2박 3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주로 부부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며 동반한 자녀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가족 힐링 캠프 사역자들은 주로 힐링 캠프를 경험한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멘토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간의 교제, 결속 등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표 15> 가족 힐링 캠프 일정표<sup>80)</sup>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모	자녀	부모	자녀	부모	자녀
오전	·출발 ·개회에배		·우리 가족 하나 되기 (오리엔티어링+미션게임)		·남이섬여행 ·집으로 출발	
오후	·마음열기(레크리에이션) ·우리 가족 하나 되기 ·가족래프팅		·가족운동회 물놀이+어포기낚시대회			
야간	·행복한 부부행진	·초등: 창작교실  ·영유아: 힐링 놀이터	·힐링 특강	·초등: 창작교실  ·영유아: 힐링 놀이터		
			·캠프파이어+ 가족장기자랑			

#### 나. 새 가족팀

교회적으로 볼 때 각 교회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새 가족 사역일 것이다. 그런데 이 새 가족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문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다.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가는 것이다. 기존 성도들과의 어울림과 하나 됨, 이미 이루어진 친분관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자리를 찾는 일이 어려운 점이 새 가족들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노출될 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마음을 열기까지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가 낯선 이방인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개척교회의 모습을 벗어나 30-50명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

80) 2015년 가족 힐링 프로그램 일정표임.

회들마다 새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광명교회는 교제공동체 새 가족팀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 “새 가족이 아닌 내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새 가족들이 낯선 환경에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을 감추지 않도록 교회 입구, 로비, 본당, 본당중층 입구마다 새 가족 팀원들이 영접 사역팀을 이루어 주일 예배 전후,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영접 사역팀은 다시 등록 사역팀으로 새 가족들을 안내하여 교회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등록절차를 돕는다. 교회 예배시에는 새 가족이 예배자로서 낯선 사람을 인식하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필요할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로 뒷자리에 위치하여 함께 예배하는 바나바 사역팀이 있다. 또한 예배 후 바로 환영실로 안내하여 간략한 교회 소개, 환영선물 및 교육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담임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VIP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하여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교회를 향한 편안한 마음을 유도한다.

또한 ‘행복한 만남’이라는 새 가족 교육(5주 과정)시간을 통해 각 교구 담당 교역자들을 매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며, 교회의 사역팀, 성경공부, 목장 공동체 등을 소개하며 장차 팀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사발견 테스트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한다. 그리하여 새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다. 바나바팀

새 가족사역을 잘 하여서 교회 등록을 잘 하였다고 하여도 교회에 등록하여 정착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자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성도와 새 가족들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새 가족 등록 이후에 정착까지의 모든 과정은 최악의 경우, 새 가족들에겐 기존의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친분관계와 그 속에 있던 모든 이해관계 속에 녹아들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등록한 교회를 향한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새 가족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의 고독한 걸음,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질문들 (헌금생활, 공동체, 평일에배 등의 정보 및 세례, 직분, 혹은 복지 등에 관련된 교회의 행정적 도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향해 손쉽게 손을 뻗치지 못할 경우, 새 가족들은 문제에 봉착하며 그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가 된다.

광명교회 교제공동체 바나바팀 사역은 이렇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새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등록하여 정착하기까지 새 가족과 바나바 (돕는 자)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교제 공동체의 새 가족팀에 속한 등록 사역팀에서 등록 새 가족이 생길 경우, 즉시 바나바팀으로 사역지원을 요청한다. 바나바팀은 등록카드에 기록된 새 가족의 신앙정도(초신자, 기존 신자)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자녀의 나이 등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바나바를 매칭시킨다. 등록 후 환영시간 바나바는 새 가족을 찾아가 인사하며, 새 가족 교육 안내, 주일 예배시 영접 및 배웅, 교회 생활에 필요한 사항 안내 (헌금, 행정적인 일 등), 목장공동체 리더와 남녀선교회장들과의 만남들을 주관하며, 성도의 교제 (식사)시에 함께 동석하며 낯설음이 사라지기까지 기존의 성도들에게 새 가족을 안내,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을지라도 처음 본 교회를 접하는 모든 새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지 않도록 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라. 평생 교육팀

평생 교육팀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준비를 통해 진행 예정 사역이다.

#### 마. 코이노니아팀

코이노니아팀은 각 목장 공동체와 남, 여 선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 (1) 목장 공동체

목장공동체는 광명교회 안에서 교회정착과 영적 성숙, 공동체적 봉사를 실현하도록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는 목장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에 기여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목장공동체 리더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직장인 리더를 위한 수요기도회 후 9시에 모인다. 목장리더의 사역 내용은 목장을 돌보며 주 1회 목장예배를 인도한다. 또한 매월 첫째 주일은 목장공동체 연합예배로 수요기도회 시간에 모인다. 목장예배 교제는 담임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을 교제로 만들어 묵상과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장리더의 사역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장 리더는 모임 시간에 제일 먼저 와야 한다. 둘째, 목장 리더는 각 목장 식구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정확히 알고 대화를 갖는다. 셋째, 목장 리더는 정치 이야기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목장 식구끼리 유머를 돌아가면서 준비하여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주일예배 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의 핵심을 파악하여 정리해 기록한다. 여섯째, 목사님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미리 한 번 더 들어 본다. 일곱째, 목장 모임 때 부를 찬양을 미리 불러 보아야 한다. 여덟째,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전화심방을 하여 목장 식구들에게 모임 참석 권유 및 기도제목을 나눈다. 아홉째, 목장리더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목장 식구들 개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 열 번째, <목장원 용> 목장 모임 지침을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식구들과 읽어보도록 한다.

목장 모임 운영방식은 첫째, 목장 리더는 성령님이 목장 모임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로 준비 한다. 둘째, 목장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여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모임 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갖고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귀가한다.

### (2) 남여 선교회

남여 선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각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남선교회 구성

사무엘선교회 (1938년생 이전 / 77세 이상)

제 1남선교회 (1939-1948 / 67-76세)

제 2남선교회 (1949-1953년생 / 62-66세)

제 3남선교회 (1954-1958년생 / 57-61세)

제 4남선교회 (1959-1963년생 / 52-56세)

제 5남선교회 (1964-1968년생 / 47-51세)

제 6남선교회 (1969-1973년생 / 42-46세)

제 7남선교회 (1974-1978년생 / 37-41세)

제 8남선교회 (1979-1989년생 / 26-36세)

## (나) 여전도회 구성

한나회 (1938년생 이전 / 77세 이상)

제 1여전도회 (1939-1946년생 / 69-76세)

제 2여전도회 (1947-1950년생 / 65-68세)

제 3여전도회 (1951-1953년생 / 62-64세)

제 4여전도회 (1954년생 / 61세)

제 5여전도회 (1955년생 / 60세)

제 6여전도회 (1956년생 / 59세)

제 7여전도회 (1957년생 / 58세)

제 8여전도회 (1958년생 / 57세)

제 9여전도회 (1959년생 / 56세)

제 10여전도회 (1960년생 / 55세)

제 11여전도회 (1961-1962년생 / 53~54세)

제 12여전도회 (1963년생 / 52세)

제 13여전도회 (1964-1965년생 / 50-51세)

제 14여전도회 (1966-1967년생 / 48-49세)

제 15여전도회 (1968-1969년생 / 46-47세)

제 16여전도회 (1970-1971년생 / 44-45세)

제 17여전도회 (1972-1973년생 / 42-43세)

제 18여전도회 (1974-1975년생 / 40-41세)

제 19여전도회 (1976-1977년생 / 38-39세)

제 20여전도회 (1978-1979년생 / 36-37세)

제 21여전도회 (1980-1981년생 / 34-35세)

제 22여전도회 (1982-1988년생 / 26-33세)

#### 바. 취미동아리팀

취미동아리팀은 광명교회 내 성도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동아리 모임으로 교제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동아리 종류는 축구팀, 족구팀, 자전거팀, 등산팀, 테마여행팀, 남성 중창팀, 여성중창팀, 켈트팀, 오카리나팀, 거북이마라톤팀 등이 있다. 동아리 모임에 대한 지침은 자체 회칙에 의한다.

#### 제 4 절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의 평가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의 평가는 아직 본 연구자가 부임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목회자 주도적인 교회 시스템에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처음 평신도 사역 계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동기 부여 작업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나누고 삶을 적용하는 다양한 소그룹이 필요했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역 중심으로 연결해 놓은 구역조직의 한계와 훈련된 리더의 부재는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음도 보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 및 목회비전 수립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순종의지였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새로운 성장을 향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기초들을 광명교회 안에 예비해 주셨고 30여년의 1대 목사의 신앙 양육의 좋은 토양 위에 새로운 조직 구조를 갖춘 평신도 은사 중심의 사역개발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한 그동안의 사역을 평가해 본다.

본 장에서는 지난 약 3년 동안의 사역 개발 및 은사 배치를 통한 팀사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5년 현재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원 통계를 보면 다음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1,088명이 헌신하고 있다. 이 결과는 광명교회 전체 장년 교인수가 총 2,415명인 것을 감안할 때 45 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러나 평균 장년 예배 출석인원이 평균 1,300여 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평신도 사역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 보완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해결과제는 광명교회 사역의 원칙은 1인 1사역(주중 사역을 포함할 경우엔 2사역도 가능) 인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여러 사역에 참여함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있음이다.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을 주도해 나갈 리더 발굴과 양육의 과정이다. 양육의 과정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변화의 시대 속에서 시간과 몸을 드려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더욱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저녁 모임이나 주말 모임, 주일 오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개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원하는 교인들의 지향이다. 이 점 역시 본 연구자가 함께 설득하고 지속적인 말씀 나눔과 묵회 철학의 공유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이다.

네 번째는 교역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사역의 공백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헌신된 평신도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연구할 것이다.

&lt;표 16&gt; 광명교회 사역공동체 인원통계

공동체	팀이름	인원	비고
예배공동체	예배팀	51	예배안내, 성례, 헌금사역, 꽃꽂이
	중보기도팀	45	주일중보, 주중중보기도
	목양팀	12	양육사역, 제자훈련, 사역훈련
	찬양팀	248	할렐루야: 45 호산나: 70 글로리아: 64 시온: 38 마하나임: 16 여호수아: 15
섬김공동체	사역지원팀	7	전체 사역팀 지원
	복지팀	62	궁핍사역, 청솔대학
	장학팀	4	비전장학, 특별장학,
	목회지원팀	10	특별행사, 목회지원
	사랑의식탁팀	25	주방봉사,
	경조팀	40	경조사역, 소망조가대
	차량관리팀	22	차량운행, 주차관리
	재정감사팀	6	교회 시설
	재정팀	11	헌금계수, 회계관리
교제공동체	시설관리팀	16	
	취미동아리팀	76	자전거, 쥘트, 마라톤, 탁구, 족구, 축구, 등산, 오카리나, 남녀중창, 영화
	코이노이아팀	30	8개 남선교회, 22개 여전도회
	평생교육팀	3	
	바나바팀	17	심방사역, 환영 편지
	새가족팀	15	새 가족 영접, 교육.
	아가세팀 (아름다운가정 세우기)	27	힐링 캠프 스텝: 8 아버지학교 스텝: 12 마더 와이즈 스텝: 7
선교공동체	교구목장리더	115	1교구 28목장, 2교구 30목장 3교구 27목장, 4교구 29목장
	미디어팀	19	방송영상, 사진
	홍보출판팀	5	편집, 기자
	해외선교팀	6	해외선교, 단기 선교사역
	국내선교팀	26	국내 미자립교회, 군선교, 기관선교
교육공동체	신앙아카데미팀	10	성경일독, 장년 각 성경공부
	교육지원팀	2	교사 양육, 지원, 수요예교부
	교육1팀	53	영아, 유치
	교육2팀	68	사랑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육3팀	44	청소년1팀, 청소년2팀
	교육4팀	13	청년1팀, 청년2팀
총사역인원		1,088	



다섯 번째는 위 네 번째와 연장선에서 평신도 사역자 역시 갑작스런 삶의 변화로 인한 이동으로 역시 사역의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예비 리더 및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느낀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발굴과 훈련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존 사역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충전의 시간 및 재생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는 신앙사경회, 리더 수련회, 기도회 등을 활용하려고 한다.

## 제 6 장

## 결 론

본 연구자는 목사 안수 후 13년간의 부교역자 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광명교회의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다. 부임할 당시 본 연구자가 다짐한 것은 부임 이후 3년 동안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에 적응하며 이후 목회 계획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으리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당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들에 대한 열망이 컸다. 2008년 건축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교회 안의 교육적 환경이나 사역적인 환경은 성도들의 잠재력이나 창의성, 다양성,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의 구조 안에서 갇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당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광명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게 된 그림은 전통적 구조의 사역 시스템을 평신도의 은사를 계발하고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함으로써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팀사역 모델이었다.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계발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할 다양한 사역들을 계발하고 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비록 3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반성과 결과들을 살펴보게 된 것은 본 연구자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 제 1 절 요약

먼저, 서론에서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지나 양적 성장이 멈추고 질적으로나 내적으로도 매우 악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본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며,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 논문은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함을 밝혔다. 특별히 평신도 중심의 팀 사역을 연구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참여를 통한 미래 내안으로서 건강한 교회 상을 찾고자 했다.

2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사역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신도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기초로 한 평신도 사역을 위한 교회론을 다룸으로 첫째, 교회의 통일성(unity), 둘째, 교회의 거룩성(holiness), 셋째,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 넷째, 교회의 사도성(apostolicity) 등의 네 가지 본질을 추구할 때 평신도 사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교회 사례 연구로 지구촌 교회의 평신도 사역과 안락교회 평신도 사역을 살펴보았다. 지구촌교회와 안락교회의 역사와 목회 철학, 사역 조직을 살펴보면서 광명교회 비전을 세울 때 지구촌교회와 안락교회 사례에서 얻은 핵심가치들을 평가를 통해 밝히면서 평신도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평신도를 사역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준비하는 첫 단추가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훈련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광명교회가 속해 있는 광명시의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인 특성, 기독교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광명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하안동, 소하동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지구로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 아파트지역이다. 광명시의 전체 세대는 128,900세대, 약 35만 명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서울 위성도시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도시이며 교육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지역임을 말하였다. 광명시 지역의 교회는 18개의 행정동에 속한 교회와 교인의 수는 339개 교회, 57,965명이다. 광명시 기독교 복음화가 2005년 현재, 전체 인구 수

가운데 24.5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과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 수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퍼센트라는 것도 알게 되어 이러한 통계는 광명교회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도 말하였다.

또한 광명교회는 1982년 3월 28일에 초대 목사이면서 현 원로목사인 김만중 목사에 의해 개척하였다는 것과 2008년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1대 목사의 은퇴를 기점으로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광명교회의 목회 비전, 목회 이념, 목회 철학들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써 광명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교회 활성화 방안들을 진행해 갔는지에 대해 말하였다.

5장은 평신도 사역의 실제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평신도 사역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양육사역이 하는 사역을 살펴보았다. 양육 사역팀의 사명은 양육과정을 통해 변화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정과 직장,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교육내용들과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렇게 양육을 통한 평신도 리더들과 은사확인을 통한 사역자들을 배치하기 위한 다섯 개 공동체 사역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사역팀들의 그림과 역할들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광명교회 사역개발을 통한 교회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한 공과를 논하며 발전적인 평신도 사역개발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 제 2 절 제언

오늘 날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세속화 와 부정적 행태는 젊은이들은 물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처와 평신도 사역의 부재,

그리고 전통적 교회가 갖는 직분의 서열화로 인해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부교역자 시절 경험한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에 대한 세상적 시각이 헌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직분을 받는 것을 올바르지 않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직분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여긴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의 헌신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몸의 역할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평신도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각 사람의 은사는 다르지만 자신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살리고 서로 동역하며 세워가고 지탱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교회라는 현장 외에 삶이라는 또 하나의 사역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성숙시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최선의 길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부름 받은 성도들답게 전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될 때 비로소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력하나마 본 논문이 평신도 사역 개발을 통해 전통적 교회를 역동적이고 활성화 시키고자 힘쓰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맺는다.

## 부록 1

## 1주차 설교

성경본문: 사도행전 2장 46-47절

제목: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세해 우리 광명교회에 주신 표어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다.

금년 광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표어 아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부터 다음 몇 주간 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뿐 아니라 집에서든 떡을 떼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점이다. 그 원인은 현대인들의 삶이 주일이 우선이기보다는 주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인간적 쉼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휴식과 레저를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성도의 인생도 성공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교회를 잘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끝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배만큼 믿음이 자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몽골교회의 한 자매가 예배가 시작하고 잠시 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예배실에 들어왔다. 그 자매는 몇 달 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게 된 자매이다. 그런데 주일 예배 몇 시간 전 기르던 소가 없어졌다. 소를 찾으러 벌판을 뛰

어다니다가 예배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별판에서부터 교회까지 뛰어왔다는 것이다.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에 감동하여 이 자매가 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며 도우신다는 예화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사람인가?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찾으신다”(요 4:23-24)는 말씀이었다.

교회는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 되면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는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예배 없이 봉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섬기게 된다. 그로 인해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다른 성도와의 갈등을 불러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를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준비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날, 백화점 출입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한다. 공연한편을 보기 위해서도 최소한 30여 분 전에는 공연장에 도착해야 하고, 비행기를 탈 때는 적어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늦게 올 때가 많다.

또한 직장 생활 때문에도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도 있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루하루가 피곤하여 얼마나 쉬고 싶은지 모른다. 때로는 눕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한 예배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가득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참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

## 2주차 설교

성경본문: 에베소서 4장 1-12절

제목: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고통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되고,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 형제와 이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눌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며, 그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



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겹손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겹손을 따라 한 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한다.

7-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은사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말씀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였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였다.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였다. 몸의 지체가 이름도, 하는 일도 다르듯 성도들도 섬기는 자리와 맡겨주신 사역이 다르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다 귀하듯, 모든 성도들은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차별이 없이 귀하다. 직장의 직급과는 다르게 역할을 위하여 다르고, 풍성하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지난 30여 년의 수고와 은혜를 통해 지금의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역을 풍성하게 이루어감으로 더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 부록 2

## 방송팀 사역 ( )월 check List

작성: 팀장 (인) 음향 및 프리젠테이션 범례: 양호○ 보통△ 개선 x						
구분	Check List	1주	2주	3주	4주	5주
마이크 및 음향 시스템	1. 예배 진행 순서와 성격에 맞게 마이크는 세팅되었는가?					
	2. 스피커가 바르게 세팅되고 배치되었는가?					
	3. 예배 시간 전에 마이크 및 음향시스템 확인·점검을 하였는가?					
	4. 예배 전·후 적절한 음악을 선정하여 송출하였는가?					
	5. 자모실 스피커의 음량은 적절 하였는가?					
프리젠테이션	1. 필요한 자료는 예배 성격 및 설교자의 의도대로 준비 되었는가?					
	2. 송출할 자료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 하였는가?					
	3. 관련 장비의 정확한 작동 및 실행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4. 컴퓨터 파일 정리를 하였는가?					
제안사항						

## 부록 3

## 목장모임 순서지

## ♣ 0월 0일 목장모임 교재 ♣

♣ 마음나누기/ 시험이나 중요한 약속에 늦은 경험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기’운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찬송/ 337, 218장

♣ 본문/ 롬 12:1-2

## [말씀 나누기]

“ 믿음으로 사는 사람(6) 예배자로 사는 사람 ”

“1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1.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1)

☞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깨워주며, 영적예배란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2)

☞ (1) 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2)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아 일하는 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몸이라고 같은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몸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제사에서 티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몸을 원하십니다.

4.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봉사(service)입니다. 참된 예배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 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5.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믿음의 삶도 무너지고, 예배의 삶이 살아나면 믿음의 삶도 살아납니다.  
 “참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야합니다.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그곳이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좀 더 애써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가정 예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역과 가정의 예배를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나누기 ▣

1.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어느 말씀입니까?

---

2. 왜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까?

---

3.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

## 부록 4

## 새 가족 만남 일지

## 새 가족 만남 일지

[새 가족 목장:                      목장]

[선교회 :                      (남, 여)선교회]

이름		나이	
연락처		성별	
주소			
이전교회		이전교회 직분	
가족사항			
관계	이름	연락처	특이사항
♣ 새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된 사항			
♣ 새 가족 중보기도제목			
♣ 추가 참고 사항			

## 부록 5

## 바나바 활동 사역 체크리스트

바나바 활동 사역 리스트					
확인사항	1주	2주	3주	4주	5주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기도하기					
전화연락					
주일참석					
교육 참석					
구역장만남					
선교회장과 만남					
새 가족과 식사					
심방연락 (5주간 1회 심방)					
기타					

## 부록 6

## 환영 편지 사역팀 바나바 편지

## 1) 1주차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_\_\_\_\_님께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명교회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됨을 진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선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신앙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광명교회 새 가족팀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_\_\_\_\_님의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새 가족 담당 바나바사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 사역자	연락처(핸드폰, 전화)

다시 한 번 광명교회의 가족이 되어 주신 \_\_\_\_\_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교회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후로 이 편지를 포함하여 5주 동안 글로써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편지를 꼭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2주차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_\_\_\_\_님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들 합니다. 인생의 길이 간편한 나들이라면 몰라도 멀고 험한 미지의 길이기때 그 길을 혼자서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허무하고 쓸쓸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길에 우리의 짐을 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계시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명교회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온갖 불행과 고통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며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기대하기보다 성도님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소속감을 갖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을 위한 성경공부가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광명교회 3층 두란노실에서 진행됩니다. 5주간의 훈련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교구교역자와 함께 새 가족 심방도 받으시고 광명교회의 행복한 식구가 자연스럽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교회에 한 가족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_\_\_\_\_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 3주차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_\_\_\_\_님께

어느덧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3주가 지나가면서 저희 광명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가진 교회인가 궁금해 하실 거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명교회는 1982년 광명시 철산동에 세워진 교회로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영등포 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명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팀사역을 중심으로 교회사역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교회는 4교구의 목장으로 목장리더를 중심으로 한 구역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_\_\_\_\_님은 이제 \_\_\_\_\_교구 \_\_\_\_\_목장에 편성되었으며 이제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목장 리더님이 신앙생활의 안내자역할 해주실 것입니다.

_____목장 _____목장리더	연락처(핸드폰, 전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_\_\_\_\_님은 이미 신앙생활에 반은 접어드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회복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_\_\_\_\_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다음 주에도 \_\_\_\_\_님의 귀한 얼굴을 또 다시 기쁘게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4주차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님께

이제 광명교회에 등록하신지 4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교회에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나시고 어떤 분과 친해지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광명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며 처음 등록하셨을 서먹함과 어색함이 한주 한주의 만남을 통해 많이 녹아지셨을 거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광명교회의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4주간 동안 저희의 \_\_\_\_\_님을 향해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진정 의미가 있고 진심이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광명교회에 이제는 정착하셔서 하나님께서 \_\_\_\_\_님의 심령에 풍성한 물을 대주시는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겹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신앙의 길에 저희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_\_\_\_\_님의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저희가 동행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_\_\_\_\_님은 이제 \_\_\_\_\_선교회에 에 편성되었으며 이제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선교회장님이 \_\_\_\_\_님과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_____선교회 회장	연락처(핸드폰, 전화)

매주 만나는 광명교회의 교우들과의 만남과 바나바와 도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명교회의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안에서 하나 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복된 만남을 기대하며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 5) 5주차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_\_\_\_\_성도님께

이제 광명교회가 더 이상 \_\_\_\_\_성도님에게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광명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벗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광명교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명교회의 한 가족으로 교회 안에서 주관하는 예배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게 되실 줄 압니다.

바쁘다는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이지만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알맞게 이루어지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의 신앙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광명교회 교우들과 교역자들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도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와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해주시는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_\_\_\_\_성도님이 저희 광명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_\_\_\_\_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부록 7

## 비품 및 장비 현황

## 1. 식당(지하 1층)

순서	장 소	비품 및 장비	수량	점 검 사 항
1	식당	냉장고		
2		싱크대		
3		탁 자		
4		정수기		
5	주방			
6				
7				
8				
9				
10	고등부실			
11				
12	유치부실			
13				

## 2. 본당

순서	장소	비품 및 장비	수량	점 검 사 항
1	강단	강대상		
2		헌금바구니		
3		마이크		
4		화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 본당 로비

순서		비품 및 장비	수량	점검 사항
1		필경대		
2		책상		
3				
4				

## 4. 3층(방송실)

순서		비품 및 장비	수량	점검 사항
1		컴퓨터		
2		앰프		
3		프로젝트		
4		리모컨		
5		마이크		
6				

## 5. 3층

순서	장소	비품 및 장비	수량	점검 사항
1	회의실			
2				

3				
4				
7	유년부실			
8				
9				
10				
11				

예비해야 할 비품목록

번호	품목	규격	사용장소
1	전등		
2	화 장 지		
3			
4			
5			

## 부록 8

## 예배준비사역 체크리스트

팀장: _____ (인) _____ 예배준비사역 _____		범례: 양호 ○ 보통△ 개선■				
구분	Check List	1주	2주	3주	4주	5주
청소 상태	1. 강대상은 깨끗한가					
	2. 의자 밑에 주보나 휴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3. 계단 및 교회 진입로는 깨끗한가					
의자 배열	1. 의자간의 간격은 적당한가					
	2. 의자간의 정렬상태는 맞추어져 있는가					
강대 상	1. 강대상은 정위치에 잘 놓여 있는가					
	2. 강대상 주위를 잘 정돈 하였는가					
	3. 강대상 및 강단에 불필요한 물건은 놓여 있지는 않은가					
	4. 강대상에 물, 수건, 주보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5. 예배 후에 강대상의 모든 것을 정리 및 회수하였는가					
부착 물	1. 모든 교회 내 부착물은 정 위치에 잘 부착되어 있는가					
	2. 필요없는 부착물이 달려 있지는 않은가					
꽃꽂 이 및 장식	1. 꽃꽂이 및 화분의 위치는 잘 배치되어 있는가					
	2.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이 정위치에 준비되어 있는가					
기도 자 및 봉헌 위원	1. 대표기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가(정장차림)					
	2. 봉헌위원은 정시간에 도착하여 정위치에 있었는가?					
냉· 난방	1. 예배 전에 냉난방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가					
	2. 예배 후에 불필요한 냉난방의 off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조명	1. 예배 전에 조명은 알맞게 켜져 있는가(벽등, 형광등)					
	2. 강단 형광등 및 필요한 조명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는가					
	3. 예배 후에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했는가?					
비 품	1. 각종 전선들과 비품 중에 위험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가					



## 부록 9

## 예배 안내팀 사역 ( )월 Check List

팀장: _____ (인) _____ 예배안내사역 _____ 범례: 양호 ○ 보통 △ 개선 ■						
구 분	Check List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안내 대상	처음 오신 분에게 동행하여 안내 하였는가?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안내 준비	입구 및 1층, 2층 등 정해진 위치에서 안내하고 있는가?					
	헌금봉투, 성경찬송, 좌석 등 정돈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안내 방법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였는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였는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등 인사					
기타	축도 시 각 봉사 위치로 이동 후 “안녕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로 환송 인사를 하였는가?					

## 부록 10

## 목장리더 서약서

목장리더 서약서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맡겨주신 목장과 목장식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한 지체로서 사랑과 포용심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2.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며  
 그들을 위해 늘 깨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3. 목장 식구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그들이 성숙해 가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목장 리더로 부르심을 받으며

\_\_\_\_\_이름: \_\_\_\_\_(서명)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광명교회

## 참고 문헌

## 1. 국문서적

- 광명교회 편. *제자의 삶*. 서울: 광명교회 홍보출판팀, 2013.
- \_\_\_\_\_. *행복한 만남*. 서울: 광명교회 홍보출판팀, 2013.
- 교회성장연구소. *교회선택의 조건: 한국교회 교인 수평이동에 대한 연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국제제자훈련원. *영적 성장의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세우기*.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김만중. *광명교회 30년사*. 서울: 신우 디엔피, 2012.
-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 1998.
- 김영환. *한국 기독교화 기독교 지성인*. 서울: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회, 1987.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이렇게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두란노 편.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서원, 2010.
- 박영기.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3.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 서울: 벡서스CROSS, 2012.
- 윤동일. “평신도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활성화 방안-안락교회를 중심으로.” D. 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 이사부엘. *평신도를 부른다*. 서울: 성광문화사, 1999.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전호진.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정일웅. *평신도들의 신앙 발자취*. 총회교육국 편. 서울: 대한예수교총회, 1997.
- 정진경. *신학과 목회*.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정찬우 편. *NCD전도소그룹 실행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조성중.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성광출판사, 1997.
-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사역매뉴얼*. 서울: 두란노, 2012.

진재혁.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서울: 더난출판사, 2002.

하용조.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13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9.

현유광. *갈등을 넘는 묵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황청일. *교회성장과 평신도*.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5.

홍영기.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 2. 번역서적

Bailey, Mark L. *제자도의 7가지 핵심: 예수님을 향한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  
서울: 디모테, 2011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Barna, Geroge.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Berkhof, Louis. *교회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Bridge, Donald & David Phyp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위치*. 문석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9.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Cordeiro, Wayne. *팀으로 이끄는 교회*. 김정섭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1.

Crabb, Larry. *교회를 교회되게*.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Donahue, Bill. *윌로우 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 소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7.

Eims, L.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0.

Foster, Richard.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France, Ronald T. *마태신학*. 이한수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Glenn, Denise. *지혜*. 원혜영 역. 서울: 디모테, 2005.

\_\_\_\_\_. *자유*. 김진선 역. 서울: 디모테, 2014.

\_\_\_\_\_. *회복*. 원혜영 역. 서울: 디모테, 2015.

Hanks Jr., Billie & William A. Shell. *제자도*.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사, 1986.

Hurding, Roger. *성경과 상담*. 문희경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 Hybels, Bill. *섬김의 혁명*.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 Koch, Richard. *80/20법칙*. 공병호 역. 서울: 21세기 북스, 1997.
- Kraemer, Handrik. *평신도신학*.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Maxwel, John I. *파워 리더십*. 서울: 청우출판사, 2000.
- Rapp, Robert S.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테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 Slaughter, Michael &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Stevens, R.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황병룡 역. 서울: IVP, 1999.
- Stott, John R. W. *디모테후서 강해: 복음을 굳게 지키라*. BST 시리즈. 김영배 역. 서울: IVP, 2008.
- Tozer, A. W. Tozer. *애배인가 쇼인가*.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Vita of  
Jae Hark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wangmyeong Church, Gwangmyeong

Personal Data:

Birthdate:	November 18, 1966
Marital Status:	Married to Ji Youn Lee with two children, Sung Won and Zion
Home Address:	109-902, Cheolsan Raemian Xi Apartment 56, Digital Ro, Gwangmyeong-si, Gyeonggi-do 14241, Rep. of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Tonghap)
Ordained:	April 4, 1999

Education:

B. A.: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2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9/2012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wangmyeong Church , Gwangmyeong
1/2006 to 08/2012:	Assistant Pastor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9/1999 to 12/2005:	Assistant Pastor of Hwiky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1/1998 to 8/1999:	Assistant Pastor of Jinkwang Presbyterian Church, Seoul.